HANURI TOUR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77.890.5913~4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E-mail: usaj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융자, 차종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Tel. 213-739-0403 Fax. 213-402-5136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September 6, 2012 Vol.354

멀티사이트처치 메가처치 수 넘어섰다

10년 만에 200개에서 5,000개로 폭발적 성장

미국 교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멀티사이트처치(Multi-Site Church)'.

최근 텍사스 주 리더십 네트워크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00여개에 그쳤던 멀티사이트처치가 10년이 지난 지금 5,000여개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1990년 10개, 1998년 100여개, 2002년 200여개, 2005년 1500여개, 2008년 2000여개(Monday Morning Insight 자료)로, 2000년대 중반과 최근 4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멀티사이트처치는 현대 교회의 한 모델로,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운 교회를 지을 때 독립적인 교회로서가 아니라 본부가 될 수 있는 교회에 속한 지부 개념으로 세우는 것이다. 멀티사이트처치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배경의 커뮤니티에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다, 1개 교회에서 이뤄지는 것보다 더 많은 침례(세례)를 주고 교회 봉사자들을 양성한다' 등이다.

리서치 디렉터를 맡았던 워렌 버드 박사(리더십 네트워크)는 "처음에 메가처치(주일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멀티사이트처치의 생성 트렌드는 현재 500명 이상 중형교회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제 멀티사이트처치의 수가 미국 메가처치 수를 능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드 박사는 이같은 증가의 이유를 "지역 교회를 개척해 주민들에게 전도를 활발히 하기 위한 것, 혹은 예배 장소가 비좁아 확장의 벽에 부딪힌 교회들 그리고 많은 회중이 다른 지역에 집중돼 있음으로 인해 근접 지역 캠퍼스를 개척한 경우를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멀티사이트처치가 미국 교회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으면서, 교단을 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미국연합감리교단(UMC) 교회 개척 부분 총 디렉터인 게리 쇼클리 목사는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UMC 개척 교회 621개 가운데, 최소 반절 이상이 멀티사이트처치의 형태로 세워졌다"면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생길 1,000여 교회는 약 60% 이상을 기존의 확장 캠퍼스 혹은 위성방송을 통한 멀티사이트처치 형태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멀티사이트처치의 급증에도, 원사이트처치(One-Site Church), 즉 캠퍼스 없는 독립 교회의 수를 능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버드 박사는 "1개의 교회 장소에서 전통적인 주일예배를 드리는 200명 이하 출석율의 교회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성경 교육을 통한 목회자와의 가까운 관계 형성이 어려워서 소위 헌신하지 않는 선데이 크리스천의 만성적 양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나온다.

비디오 자원이 발달한 199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한 멀티사이트처치는 처음에는 찬양과 기도까지 비디오로 전하던 형식에서, 현재 설교만을 방송하는 형태를 취하는 등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 발전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 미국 멀티사이트처치로는 마스힐스처치, 셀러브레이션처치, 노스포인트커뮤니티처치, 라이프처치, 윌로우크릭처치 등이 있다.

미국 내 최초로 멀티사이트처치를 시작한 것은 캘리포니아 비스타 지역에 소재한 노스코스트처치로, 담임 목사의 설교메시지를 다른 지역의 캠퍼스에 방송함으로써 예배를 열었다. 24개월 안에 1,300명의 교인이 비디오를 통한 예배를 드렸으며, 그로부터 1년 후에는 2,300명으로 증가했다. 2005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노스코스트처치는 매주 5개 지역 캠퍼스에서 총 21번 주일예배를 드렸다.

버드 박사는 "멀티사이트처치가 5,000개를 넘어서면서 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 모델이 다뤄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나라 기자

남가주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일꾼들이 컨퍼런스에 모였다. 사진 첫번째줄의 우측 네번째가 박용덕 목사.

시대를 살릴 거룩성 운동

뉴스피릿무브먼트 상임대표 박용덕 목사

남가주 일대에 거룩성 운동의 새로운 영적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20, 21일 열린 제1회 뉴스피릿무브먼트(거룩성 운동) 컨퍼런스가 바로 그 진앙지다. 그리고 그 중심엔 남가주빛내리교회 박용덕 목사가 있다.

이 운동의 상임대표를 맡게 된 박 목사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띠고 앞으로 남가주뿐 아니라 북가주, 샌디에고 등지로 퍼져나갈 것"이라면서 "이 대회의 핵심은 말 그대로 '거룩'에 있다. 기본적으로 '성경 회복 운동', '성령 회복 운동', '성결 회복 운동'의 특징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죄악 중에 있는 영혼들의 회개와 천국 백성 만드는 일(마4:17)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것(마 6:10)"이었다며 "특히 신앙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미국과 세계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새 정신 운동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거룩'은 성경의 핵심"이라면서 "거룩 없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해석되지 않고, 교회도 성도도 성경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해석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성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핵심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도 그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줄기가 신약으로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선 그의 백성들이 거룩할 때 기적을 베푸셨다. 또한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엔 여지없이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성경 역사에 기록된 5대 제국의 멸망도 마찬가지다. 백성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음란 문화에 빠졌을 때 아무리 큰 제국을 이뤘다 해도 무너졌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Holy Life, Holy Family, Holy Nation)'를 표어로 삼고 거룩성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번 대회엔 1백여명이 참석했다.

정한나 기자

신천지 돌파 특별세미나

한국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대책 세미나가 열린다. 이름하여 '신천지 돌파 특별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가 후원하고 UBM교회(앤드류 김 목사) 주최 하에 열린다. 강사로는 전 신천지 교육장 신현욱 전도사가 나선다. 스무살 때부터 무려 20년간 신천지에 빠져 교육장 7명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해 온 그는 5년 전 신천지에서 탈퇴했고 현재 신천지 대책 강의 사역자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번 세미나 기간 중 그는 4차례에 걸친 강의를 펼치게 된다.

UBM교회 앤드류 김 목사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그들의 교리적 문제점을 알고 구체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대처해야 할 때"라며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천지를 이제 함께 돌파해 나가자"고 밝혔다.

장소: UBM교회(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90604)
전화: 562-903-2600
일정: 19일 오후 8:00-10:30
20일 오전 10:00-오후 12:30, 오후 2:00-5:00, 8:00-10:30

정한나 기자

라이프 섹션

13면 북새통
» 신간소개 | 예수 빼고 다 바꿔라, 예기치 못한 여행 外
» 서평 | '걱정하면 믿음 없어 보일까' 걱정하는 크리스천들
16면 헬스 & 라이프 피부과학의 新혁명, 면역시스템의 비밀
17면 푸드레시피 파르펠레 셀러드, 두부 단호박 탕수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it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DAEWOO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변호사,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K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HANA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 #0H66712
DAVID KANG이 한인 어르신을 위하여 메디케어 / 메디칼 세미나를 합니다.
LIC #0F16211
하나 헬스의 세미나는 특정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세미나입니다.
■ 처음 메디케어를 신청 할 때 본인이 알아야 되는 필수 사항은?
■ 메디케어의 기본. PART A, PART B, PART C, 란 무엇인가?
■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 메디케어의 보장 범위?
■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 과 그 혜택은?
■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자격 조건과 그 혜택은?
■ 메디칼이란 무엇인가?
■ 메디칼의 자격조건과 그 혜택은?
■ 2013년 변화되는 메디-칼 혜택은?
세미나 일정
▶ 9월 15일 토요일
Rowland Heights office 10:00 ~ 12:00
▶ 9월 22일 토요일
LA office 10:00 ~ 12:00
▶ 9월 29일 토요일
Buena Park office 10:00 ~ 12:00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하나헬스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헬스와 함께하실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Medicare Part 'C' Plan 전문 회사인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에서는 소수의 성실하시고, 책임감 있으신 보험 Agent를 LA 와 OC 에서 모십니다. 자격 조건은 현재 보험 License가 있으신 분이면 됩니다. 모든 Training과 Certification 교육을 도와 드리며, 높은 수입을 약속합니다.
LOS ANGELES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David Kang LIC# 0F16211
Cell 714-614-0903
ORANGE COUNTY
6011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Allen Min LIC# 0D19973
Cell 213-272-2412
ROWLAND HEIGHTS
1722 Desire Ave. Suite.106
Rowland Heights, CA 91748
Mi Young Hong LIC# 0672051
Cell 714-715-6345
☎ 213-500-4563
Customer Service
1-855-386-3088
건강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광고용 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는 사회 서비스 기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주무관청(CMS) 혹은 사회보장국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혜택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드리며 여러분이 어떤 플랜을 선택할지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닉 부이치치, "이 모든 것이 은혜"

2012밀알의밤…연인원 1만명 참석, "희망은 여전히 있다"

닉 부이치치는 강연에서 파워풀한 메시지로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12 밀알의밤이 26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성대히 열렸다.

주강연자로 나선 닉 부이치치(Life without Limbs 대표)는 사지 없이 태어나 역경을 이겨내고 전세계 수십만 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에 결혼해 현재 아내 카나에가 임신해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며 강연을 펼쳤다.

닉은 "내가 가진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와 남가주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며 "내게 팔다리가 없지만 주시면 감사하고 안주셔도 감사할 것이다. 천국은 우울증이 없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인도에서 수십년간 포주로 일한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며, "그 늙은 여인이 4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고 앉은뱅이로 있었는데, 그 여인 동생이 나에게 '예수를 믿으면 한번 일어서게 해봐'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도전을 받아 그 여인을 일으키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 받아 방방 뛰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 여인은 150개의 사창가를 만든 자로, 그런 여인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고쳐주셨다. 여러분도 부끄러워말고 하나님께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닉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 상상도 못했다. 화장실도 혼자 못가고 늘 부모에게 짐이 되던 소년이었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절망에 빠져 욕조에서 물을 틀어놓고 자살을 시도했다"면서 "하지만 부모와 형제를 생각해 자살충동을 이겨낼 수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또 "선교는 꼭 다른 나라에 가서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도 있다. 바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닉은 "한국과 북한을 위해 나누고 싶다. 한국 사람처럼 기도하는 민족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국에 보낸 것은 미국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다"라며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눌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말이다"고 강조했다.

닉은 목회자들과 함께 강연을 마치고 콜링 시간을 통해 강단 앞으로 모여든 수 십명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주님의영광교회의 수천 석을 가득 채웠다. 집회는 지난 24일 ANC온누리교회, 25일 남가주사랑의교회에 이어 사흘간 연인원 1만명 가까이 동원됐다.

닉은 '사지없는 삶(Life without Limbs)'이라는 장애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4개 대륙 12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있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이 주최한 2012밀알의밤 행사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밀알복지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선교단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3만 8천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전도단 나사창선교연합 비전의 밤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려

예수전도단 나사창선교연합 비전의 밤이 22,23일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예수전도단 나사창선교연합(대표 김영환 목사) 비전의 밤이 22일, 23일 양일간 사랑의빛선교교회(최혁 목사)에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성황리 열렸다. 이번 집회에서는 윤주형 목사가 이끄는 올리브트리 미니스트리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해 제주열방대학 설립자이자 국제 YWAM 동북아시아 대표인 홍성건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첫째 날에 홍 목사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라며, 보이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으며, 둘째 날에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란 주제로 삶에 대한 도전을 심어줬다.

아울러 22일에 소리엘 지명현 목사와 23일에 구현화 사모가 출연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웹사이트:www.ywamnasa.org

토마스 맹 기자

"선교사 케어는 제 3의 선교전략"

선교사 치유와 회복, 재교육…자녀 양육과 돌봄 사역하는 FOM

"선교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 이뤄져야"

"훌륭한 멤버케어는 훌륭한 선교를 하게 만든다"

선교를 건강하고 힘있게 수행하기 위해선, 선교의 핵심인력인 선교사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선교사 양육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어쩌면 세계 각국에 파송돼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해 중도포기의 위험 앞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FOM 대표 장인관 목사

선교사 멤버케어 단체인 '프렌즈 오브 미셔너리(Friends of missionaries, 줄여서 FOM)' 대표 장인관 목사에 따르면, 전 세계 45만여 선교사들 가운데 매년 10퍼센트 정도가 중도 탈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30여 전부터 교단 및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인 선교사 인력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교회에 비해,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 비해, 선교사들에 대한 이해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

미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FOM은 선교에 참여한 모든 인력, 즉 멤버(선교사)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선교사로서 영광스런 직분에 걸맞는 삶의 실현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현재 안식년 선교 지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적·목회적 상담, 선교사 자녀의 학업 안내와 진로지도, 후원교회와 선교 지도자 교육, 멤버케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제 구축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스스로 한국인이 거의 없는 이국 땅에서, 오랜 기간 선교 활동을 해 왔기에 누구보다 선교사들의 속 사정을 잘 안다. 대개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한 후 파송된 그곳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지만, 막상 눈 앞에 닥친 현실은 호락하지만은 않다. 당장에 언어 문제, 사회 적응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덜컥 병이라도 걸리면 방법이 없다.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많다. 그뿐 아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야 괜찮다 치더라도 커가면서 진로 문제를 비롯해 양육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교사 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후원 교회와의 관계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선교사란 파송 교회로부터 받는 지원과 후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이들 교회와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장 목사는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 희생과 헌신 가운데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내면적인 아픔이 그들 가운데 참으로 많다"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한국 교회의 선교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선교사에 대한 이해는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 내지는 '수퍼맨'에 가깝다. 즉, 선교사라면 상이한 문화 환경 속에서, 언어를 처음 배우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기적을 만들어 교회를 개척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동시에 선교사는 가난을 낙으로 삼고 청빈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겸손과 비움, 희생을 덕목으로 하는 완전무결한, 성육신적인 삶을 살길 요구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와 기대 때문에 선교사들은 중압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도 자기 사역을 미화하거나 과대 포장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다. 따라서 먼저 교회가 선교사들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 선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돌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FOM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선교지에서 안식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개별 심리상담·목회상담·부부상담 등 각 방면의 카운슬러를 통한 선교사 상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방면에서 미국 단체들과 네트웍 및 교류를 통한 선교전략개발 지원팀, 재정 후원관리팀, 디브리핑팀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정한나 기자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딜러모집
www.GoSmartworld.com
건강 용품 전문점!
스마트 월드
로데오 갤러리아
833 S.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 323.454.7872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후지타와 함께라면 더욱 행복해 집니다
사랑받는 명품!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세계 최고 전신안마기 KN7005R
특별한 반값
$3,900 +Tax
5년 워런티
24개월 / 12개월 무이자 플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콘!
자동차 핸들 커버

히트상품
무독성 NO 알레르기 FDA 승인된 제질
음이온 발생
TOURMALINE + ALPHA
세계최초 특허품
· 장거리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분
·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 분
·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 분
·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 분
+Tax
$30

강력한 음이온+원적외선 발생

담임목사된 소감요? "10배 더 바빠진 느낌이랄까요"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양성필 목사 "찬양과 말씀 어우러지는 역동적 예배 꿈꿔"

양성필 목사

부목사에서 담임목사가 된 소감을 물으니, 아직 얼떨떨하다고 한다. 최근 라 푸엔테에 위치한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담임 목사에 취임한 양성필 목사를 만났다. 한국서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의 길로 접어든 양 목사는 불과 5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었다. 분당 평촌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재직하면서 찬양인도자로 섬겼고, 미국에 건너온 뒤 베델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올해 그의 나이 41세. 한때 교인수 1천명에 육박하던 하나로커뮤니티교회란 배를 선장으로 이끌기엔 비교적 젊은 편이다. 목회실에서 만난 그에게 근황을 물으니 (취임 이후) 기도회부터 시작했다고 대답한다. 그는 (목회 리더십 교체에 따라)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기도로 정비를 하고, 9월 부터는 제자훈련에 돌입할 태세라고 전한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41세. 남가주에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가요. 세계비전교회에 최근 취임한 김영빈 목사도 저와 동갑이에요."

- 젊으니까, 비전이 많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의 컬러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평촌교회에서 찬양인도자로 섬겼을 때 제가 작사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사역에 있어서 찬양에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찬양을 통해 예배에 활력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회의 비전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바로 서는 것인데, 찬양과 말씀이 역동적으로 어우러진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추구하는 예배의 컨셉이 따로 있습니까?

"열린예배나 구도자예배 등 컨셉을 따로 두진 않습니다. 넥타이 풀고 복음성가 많이 부른다고 열린 예배고 찬송가 많이 부른다고 닫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 성령이 춤추시는 교회가 바른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아닐까요. 사회자가 가운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를 떠나, 예배 중심의 회복에 역점을 두려 합니다."

- 담임 목사가 된 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선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담임목사로서 책임감이 생기니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특성상 2세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거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부모를 떠나 타지로 가는 2세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 일 년에 한번씩 그들과 단기선교를 가기로 약속했어요. 현재 단기선교지로는 중국과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 건강한 교회는 목사 없이도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교회라고.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을 튼튼하게 세워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가 아픔이 많은데, 건강하고 강력한 평신도 소그룹을 통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장로·권사·집사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 요즘 주력하시는 일은?

"부임하자 마자 심방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새벽예배부터 금요기도회, 목자훈련, 제자훈련, 주일예배 1·2·3부를 다 제가 하고 있어요. 한 주의 스케쥴이 예배만 10-12회 정도 되는데, 부목사 시절에 비해 가르치는 시간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죠.

부교역자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이니 심방도 직접 해야겠다 싶어 시작했는데 이제 2/3 정도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이 많아서 심방이 끝나면 밤 10시 반이 되죠."

-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 있나요?

"2세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EM 교회를 위한 시니어 패스터를 모셔서 1세의 영성과 헌신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봐온 케이스들 가운데 나성영락교회가 2세들을 세워주고 지원하는 면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잘 해 온 것 같구요. 저도 장기적으론 이런 EM 교회를 꿈꾸고 있지요. 또 평생의 목회 비전이라고 한다면, 너무 거창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이건 에피소드인데, 제 이름이 양성필이잖아요. 한자로 도울 필(弼)자를 쓰는데, 활 궁자 두 개 사이에 백자가 있어요. 나름대로 제 이름에 대한 해석을 해 본 거죠. 100명의 성도를 섬긴다는 뜻도 되지만, 100명의 선교사를 세운다는 비전이죠. 흔히 100명의 선교사를 세울려면 대형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중형교회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교회도 3명의 풀타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교회가 속한 CRC 교단이 선교에 강한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강하죠. 성도들 자체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한나 기자

테너 김준만, 회복성회 '축복의 소나기' 이끌어

샬롬장애인선교회 목요예배 시간에 공연

테너 김준만 씨가 샬롬장애인선교회에서 독창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준만 씨가 30일 오후 6시 30분에 샬롬장애인선교회(박모세 목사)에서 회복과 치유의 성회 '축복의 소나기'를 이끌었다.

김준만 씨는 유럽 최고 수준의 오페라 가수로, 이날 선교회 목요예배를 마치고 2부 성회 시간에 간증과 함께 찬양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는 간증의 자리에서 "유럽에서 귀족들과 왕족들 앞에서 공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며 "하나님의 시각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씨는 5대째 신앙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마을과 교회에서 이름난 불량아였다. 그러다 1년여 동안 교회에 엎드려 살면서 예배 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김 씨의 목소리를 극찬한 성악교수들의 도움으로 이태리에서 8년 동안 성악공부를 했다. 이후 콩쿨대회 1위를 하며 유럽에서 최고등급 계약을 제시받는 테너가수가 된다. 그는 지금껏 유럽에서 1,200여회 콘서트를 이끌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장신 총장 취임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취임식이 오는 9월 18일 오전 나성영락교회 EM예배실(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에서 있다.

제5대 총장 김인수 박사가 이임하고 제6대 총장에 이상명 박사가 취임한다. 이 박사는 총장에 취임하며 양질의 신학 교육, 역동적인 영성 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 인문학적 교양 교육, 실제적 이중언어 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문의) 미주장신대 562-926-1023
www.ptsa.edu

한주연 기자

韓 대법원 "최삼경 목사는 통합총회에서 이단" 판결

김창영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무죄 확정'

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통합측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 결정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가 최 목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김창영 목사가, 8월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신영철·김용덕)는 이날 김창영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2012도7790).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에 대한 소속 교단(예장 통합)에서의 결정'과 관련, 김창영 목사와 최삼경 목사의 상반된 주장이었다.

김 목사측은 "최삼경 목사는 통합에서 이단 규정됐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했고, 반면 최 목사측은 "본인은 통합에서 이단 규정된 바도 없기에, 해지 운운하는 자체가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며 김 목사를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김창영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삼경 목사는 이미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에서 삼신론·월경잉태론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는 "소속 교단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논리로 통합 이대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이단이 이단 대처활동을 하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최 목사는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에서도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한편, 교단 내에서 그를 비호하는 일부 세력들도 궁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창영 목사는 "같은 교단의 선배 목회자로서 교단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삼경 목사의 옳지 못한 언행에 대해 훈계했을 뿐인데, 이로 인해 최 목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수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삼경 목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교회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더 이상 교계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단 내 한 인사는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 주장을 한 뒤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이 없는데, 소속 교단인 통합측 총회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단정죄를 일삼고 교계 혼란을 부추겨 왔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 목사는 근신·자중해야 하고, 총회에서도 더는 그를 무턱대로 비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삼경 목사는 "세 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삼신론 이단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예장 통합 제87회 총회에서 이단 규정됐었다. 당시 연구보고서에서는 또한 최삼경 목사가 통합측 총회의 신학과 달리 기적종료론을 주장했다며, 이는 "비성경적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우리 교단 장로교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통합측 총회에서는 최삼경 목사가 속한 서울동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동노회는 최 목사에게 어떤 지도를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체 설명이나 자료도 없이, 2년 뒤인 제89회 총회에 "최삼경 목사가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최삼경 목사는 그 이후 자신의 이전 주장들에 대해 단 한 마디의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다른 이들을 이단 정죄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지난 2009년 김창영 목사가 여기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 최 목사와 분쟁이 발생했다.

김창영 목사는 제94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원이 된 것과 관련, 총회임원들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총회의 이단 관련 결의를 해지하려고 하면 노회가 재 연구청원을 하여 이대위로 하여금 연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에 해지청원을 하여 총회가 해지결의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총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대하여 해지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예장 통합 이대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단사이비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대표나 당사자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본 교단 결정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철회 여부 결정 ▲이단사이비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 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도,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음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증인으로 나선 김항안 목사(제88회 총회 이대위 서기, 제89회 이대위 위원장)도 "'최삼경 목사의 신관은 삼신론 및 성령론에 이단성이 있다'는 제87회 총회의 결의 이후,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지 청원이나 재연구를 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이정환 목사(제89회 총회 이대위 서기)도 "이단 문제로 교단 내부에 분열과 반목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서울동노회가 제출한 청원서를 그대로 총회에 보고하였을 뿐 총회 이대위에서 최삼경의 이단 해지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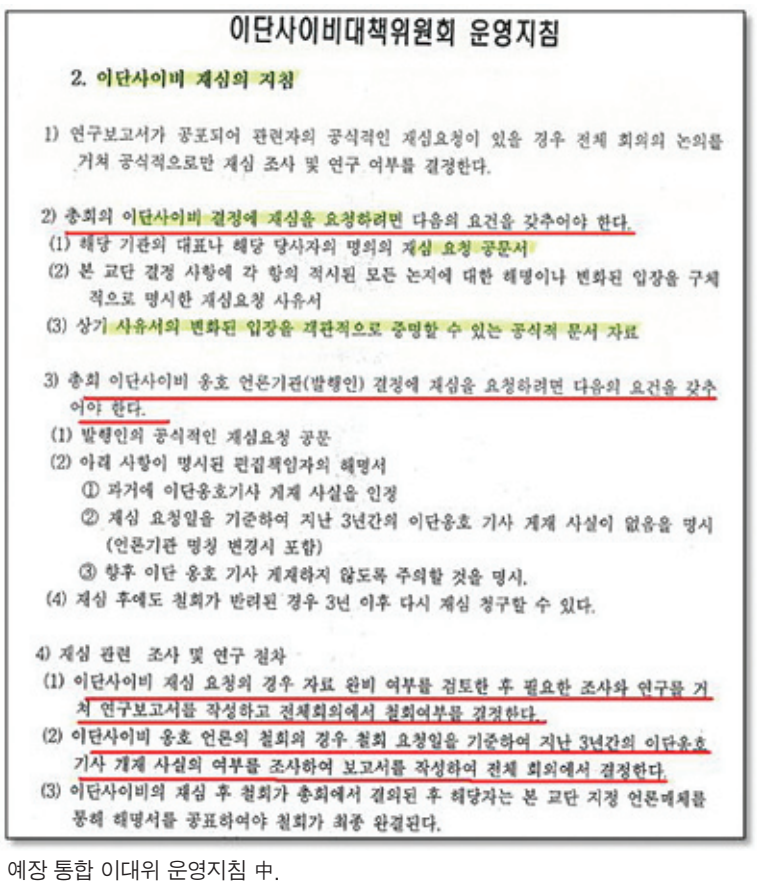
이밖에 김창영 목사는 ▲제94회(2009년)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된 것은 최삼경이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이를 추가한 후 총회에 보고했기 때문이고 ▲당시 총회에서 최삼경은 이대위 3년조(임기 첫해) 위원이므로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서기가 되었으며 ▲최삼경이 삼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맹교단 총무 18명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는 방법으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제94회 총회와 관련 ▲피해자는 공천 관계 역대 총회 결의사항 9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었음에도 이대위의 서기로 선임되어 활동한 점 ▲교회연합신문과 관련 제94회 총회 이대위 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은 통합측 총회 감사위 감사에서도 그 잘못이 지적됐었다.

금품로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삼신론 사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맹교단 총무 18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그러한 내용이 2010. 8. 1.자 교회연합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국기독언론포럼 공동취재단

최삼경 목사와 김창영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

2. 이단사이비 재심의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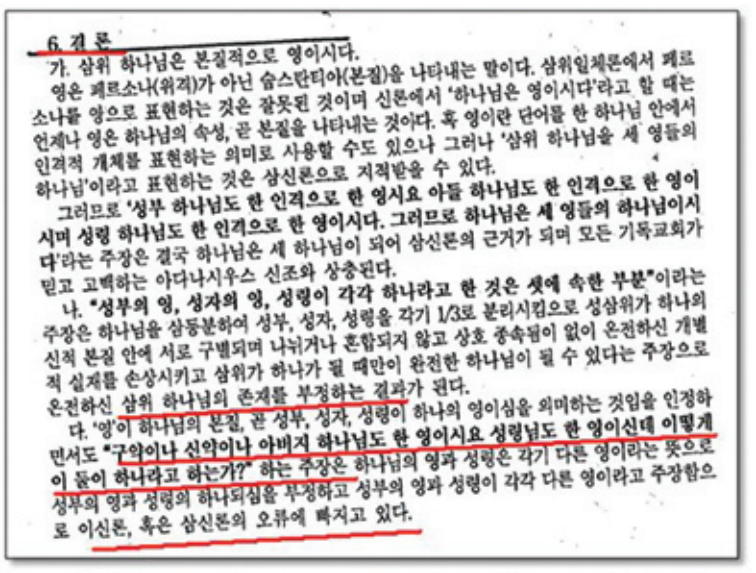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2)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3)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3) 총회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2)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①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②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 (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③ 향후 이단 옹호 기사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
(4) 재심 후에도 철회가 반려된 경우 3년 이후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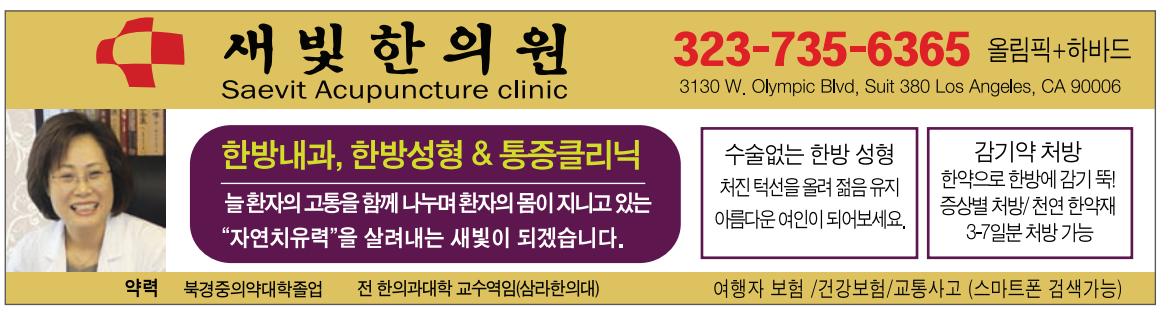
4)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철회의 경우 철회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예장 통합 이대위 운영지침 中.



6. 결 론
가.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다.
영은 페르소나(위격)가 아닌 숩스탄티아(본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삼위일체론에서 페르소나를 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론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영은 하나님의 속성, 곧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혹 영이란 단어를 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 개체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세 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삼신론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요 아들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은 결국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되어 삼신론의 근거가 되며 모든 기독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아다나시우스 신조와 상충된다.
나.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이 각각 하나라고 한 것은 셋에 속한 부분"이라는 주장은 하나님을 삼등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각기 1/3로 분리시킴으로 성삼위가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서로 구별되며 나뉘거나 혼합되지 않고 상호 종속됨이 없이 온전하신 개별적 실재를 손상시키고 삼위가 하나가 될 때만이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다. '영'이 하나님의 본질, 곧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영이심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버지 하나님도 한 영이시요 성령님도 한 영이신데 이렇게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가?" 하는 주장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각기 다른 영이라는 뜻으로 성부의 영과 성령의 하나되심을 부정하고 성부의 영과 성령이 각각 다른 영이라고 주장함으로 이신론, 혹은 삼신론의 오류에 빠지고 있다.

통합측 제87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최삼경 목사에 대한 보고서 中.



훼이스 기독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통신생 대모집 online

2012년 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1.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믹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 가입**되어 미국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③ Lee University
⑤ Oral Roberts University
6. **통신강의 (아카데믹 학위취득)**
② Indian University
④ Liberty University
⑥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신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통신생 전문 최상의 장학금 지급 · 편입생 우대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 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TH.M)	96		
	교육학석사(M.C.E)	96		
	상담학석사(M.C.C)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목회학박사(D.Min)	32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48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 D.	48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협력학교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213) 503-5330 수시접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1. 자유케 하는 진리

유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의식

오늘 본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양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선민사상에다 율법준수자로 자처하며 우쭐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갈파(喝破)하신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참 자유에 대한 그릇됨을 일깨워 주시려는 교훈이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애굽에 400여 년, 바벨론에 70여 년, 당시도 로마제국의 식민으로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남의 종된 적이 없다는 말로 속박이나 자유에 대한 무감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삶의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어 그저 형편과 처지에 밀리며 연명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류가 왜 구속과 압제를 당하게 되었나

창세기 2:16-17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 속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2:9에서 생명나무라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라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허락 받은 생명과일만 따먹고 살았으면 에덴 낙원에서 영생할 수 있었겠는데 창세기 3:1-6에 가장 간교한 뱀(사탄)의 꾀임으로 이성을 잃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 먹게 함으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신종(信從)했기 때문에 영적 소속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예속(隷屬)되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대로 이브가 따먹고 죽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해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경계의 표준을 삼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을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방치하심으로 이브가 따 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간들이 기계적으로(존경심도, 정성도, 의지도 없이) 섬긴다는 것인데, 그 섬김에 대한 의미는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기가 심히 어려운 상황(환난과 핍박, 죽인다는 위협과 극심한 고통)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와 기도로 견디며 이겨내는 것을 큰 믿음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한일관 식당 입구에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한 인형이 나란히 서있는데 손님이 들어 올 때 자동 장치로 "어서 오십시오!"하면서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 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될 때 아무 의미 없는 기계적 작동에 싫증이 날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하셨고, 로마서 6:16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죄를 범죄한 인생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 뿐 아니라 계속 마귀에게 속아 이용 당하며 계속 범죄로 지옥 길을 재촉하게 된답니다. 결국 사탄의 앞잡이로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훼방, 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 발악하기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시편 107:10-12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신 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은 깊은 절망상태로 죽을 지경으로 몰린다는 뜻이겠고 곤고는 곤란하고 괴롭다는 뜻이며, 쇠사슬에 매임은 중죄인으로 쇠사슬로 된 포승줄에 억매여 형무소와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마귀의 꾀임에 빠져 범죄한 인간은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에베소서 4:18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은 에베소서 2:1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되는 일이 없고 매사가 꼬이고 어긋나며 실패도 하고 사람과 돈에게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은, 마귀의 꾀임에 속아 범죄한 죄 값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39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셨습니다.

2.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17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고 요한복음 14:6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심을 보아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10-20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죄 값으로 영육 간에 죽어가던 죄인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십니다. 영육 간에 죄악에 얽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곧 예수 그리스도)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죄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마귀가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가 철저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죄를 용서 받고 성령을 받아야 은혜 안에 자유하며 말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악의 사슬과 지옥 형벌의 두려움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에게 종 노릇 하지 말라

유럽의 어느 백작 내외가 넓은 토지를 가지고 영농을 하는 거부로 살았는데 어느 가난한 친족 집의 아들 하나를 양자로 들이기 위하여 농토를 꽤 많이 건네 주었답니다. 그 백작은 사회적인 지위도, 재산도 겸비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회의나 파티에 초대되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양자로 들어온 아들이 아버지의 별실의 벽에 걸려있는 활과 화살을 보고 갑자기 활을 쏘아보고픈 충동심이 발동하여 화살과 활을 가지고 집 뒤 정원으로 나갔는데 마침 그때 거위 한 쌍이 보였습니다. 그 아들은 서둘러 화살을 시위에 걸고 힘껏 당겨서 가까운 편에 서 있던 거위를 겨냥하고 쏘았습니다. 화살은 거위 몸에 명중했고 꽥꽥 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비로소 아들은 후회하면서도 아무도 몰래 묻어 버리겠다고 죽은 거위를 힘겹게 들고 다소 멀리 있는 언덕 밑에 묻어주고 귀가하기 위하여 연장을 들고 돌아서는데 그 집에서 부엌일을 맡아 고용된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 아주머니는 걱정해 주는 듯 "큰일났네. 어떻게 한다지? 지난 초봄에 백작께서 거위 한 쌍을 사오시면서 집안이 적적하니 이제부터 이놈들이 내 즐거움이 되어 줄 것이라며 매일 아침 먹이를 주시며 무척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앞이 캄캄해지고 객기를 부린 자신의 경거망동에 후회가 막심했답니다. 그때 부엌 아주머니가 "내가 이 사건을 눈감아 주겠다면 내게 어떻게 해주겠느냐?"고 흥정을 해 왔습니다. 그 아들은 "아주머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제가 아주머니께 어떻게 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아주머니 왈, 어른들이 외출하시고 안 계실 때 마다 집안과 부엌까지 청소하는 것과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자기가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잠시 어찌해야 좋겠는지를 생각해봤지만 만일 이 일이 탄로되어 양부모님께서 진노하시고 자기를 쫓아버리시면 자기 몸값으로 얻어진 아버지의 농토가 반납될 것이고 자기도 그동안 부자집 아들로 호의호식했는데 순간의 실수와 범죄로 쫓겨가 다시 거지같이 살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앞이 캄캄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엌 아주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부모님이 집을 비우시기 바쁘게 부엌 아주머니가 "야! 빨리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서둘러 다 해놓아야 한다"고 큰소리치며 마치 자기 종처럼 부려먹게 되어 그 아들은 도무지 밥 먹을 시간도 잠시 쉴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며 몸살까지 앓게 되어 전신에 기운도 없고 급속도로 바싹 말라가니 새 어머님께서 불러 "왜 갑자기 네가 이렇게 되었느냐?"하시며 원인을 밝히라고 하실 때 아들이 비로소 "화살로 거위를 죽여 매장했는데 그 장면을 부엌 아주머니가 다 지켜보고 비밀로 해 줄 터이니 자기를 도와 종이 되라고 해서 부모님이 집을 나가시기 바쁘게 불러서 이 일 저 일을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님은 아들을 끌어안고 등을 다독이며 "이 어리석은 아들아! 이 엄마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까짓 죽은 거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가슴을 조이며 부엌 아주머니께 종노릇까지 하느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니, 염려 말라. 내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 거위 한 마리를 더 사다 놓을 것이며 부엌 아주머니도 오늘 당장 내보낼 것이다"라고 위로를 하셨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부모님의 신뢰와 사랑에 뜨거운 감동이 새겨지면서 다시는 실수로 범죄하지 않고 효도할 것을 다짐 했다고 했답니다.

마귀는 더욱 악랄하여 성도를 죄짓게 만들고 범죄 즉시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직고하기도 하고 이미 범죄 한 것을 올무로 계속 악용하려 할 것입니다. 요한1서 1:9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했으며, 히브리서 4:16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셨으니 참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을 위하여 서둘러서 회개하고 용서 받으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복음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인데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귀신에게 더 시달리며 종노릇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둘러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신앙고백으로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 로 몬 대 학 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환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 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충효예지부, 벧엘장로교회, 엘에이사랑의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일보,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한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가주황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SBOE,EDD,FTB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2012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9월 10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요."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턴)

교회 단신

제2회 목회자자녀 장학기금 마련 성가합창제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박응태 목사, 지휘 전중재 교수)이 오는 9월 9일 저녁 7시 제2회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마련 성가합창제를 개최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시 146:1)'라는 주제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박응태 단장 310-242-3668
박근덕 총무 714-608-1482

HYM, 청년들을 위한 연합 찬양집회

남가주청년연합회(HYM·회장 더글라스 김)가 사우스베이 첫 집회를 갖는다. 오는 22, 23일 오후 7시 토랜스조은교회(19950 Mariner Ave, Torrance)에서다.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기독청년 연합에 힘써온 HYM은 1999년 오렌지한인교회, 베델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 등 4개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창립돼 해마다 기독청년들을 위한 찬양집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이번 집회는 스물 일곱 번째 연합 찬양집회로 '지금이 그 때(Now is the Time)'라는 주제 하에 열린다. 강사로는 어깨동무사역원 이승종 목사가 나선다. 워십 인도는 전 예수전도단 화요찬양모임 리더였던 윤주형 목사(크로스로도교회)가 맡는다.

HYM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집회와 관련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한다"면서 기대를 밝혔다.
문의:714-393-5135, 323-459-9832

박성근 목사 동정

박성근 목사(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는 베네주엘라를 방문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베네주엘라한인침례교회 창립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

ANC온누리교회, 비지니스 미션 워크샵 연다

오는 20-22일, BMA 공동 주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다?"
"은퇴 후에 가능하다?"
"멀리 가는 것이다?"
"당신이 선교사이고, 당신의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비지니스 미션 아카데미(BMA)와 공동으로 비지니스 미션 워크샵(Business Mission Workshop)을 오는 20(목) 오후 7시부터 22일(토) 오후 9시까지 개최한다.

주최측은 "비지니스 미션은 21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전도와 선교 전략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세계의 모든 비지니스인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길 강력하게 촉구하신다"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미주 한인 크리스천 사회에 수퍼 메가톤급 능력을 장착한 비지니스 미션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께 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올리는' 감동의 드라마가 쓰여지길 소망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워크샵 프로그램은 주제 강의, 저녁 집회, 선택식 특강,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강사로는 코스타 국제후원회장 권경섭 소비코 대표이사와 높은뜻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를 비롯해 김진수 이미지 솔루션 잉크 회장, 방선기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백바울 SKY MRO 사장, 안정상 오티모텍스 회장, 채종욱 HOSUNG INC 회장, 김기영 BMA 디렉터 등이 나선다.

강사진은 비즈니스 영성, 비즈니스의 지혜, 선교로서의 비지니스(Business As Mission), 착한 기업이 세상을 바꾼다, 사회적 기업, 일터 사역, 형통의 비밀, 청지기 기업, 크리스천 기업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CEO 선교사의 역할 등의 제목으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비는 100불이고 20일 당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문의: 818-834-7000, ext 116

갓스윌연합교회, 노동절 맞아 일일신약 통독집회

내년에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신구약 통독 집회 열 예정

미주요한선교단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에 63명이 참여해 신약을 통독했다.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에서 지난 3일 노동절을 맞아 일일신약 통독집회가 열렸다.

미주요한선교단 주최로 열린 이 집회에는 63명이 참여했다.

신약 완독을 통해 말씀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집회 강사로는 한명구 목사, 김동원 목사, 이희철 목사 등이 나섰다.

교회 측은 "특히 김동원 목사의 로마서 8장과 방미경 권사의 고린도전서 12,13장 암송은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교회는 내년에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독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909-983-0994 정한나 기자

"청년목회, 조바심 내지 않았더니…"

미주복음방송, 권태구 목사 초청 제 7차 목회자세미나 개최

권태구 목사

미주복음방송이 제 7차 목회자세미나를 22일 오전 10시 반에 권태구 목사(청주 중원경 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열었다.

대학생 시절 한국 대학생 선교회(CCC)에서 활동했던 권 목사는 이날 '말씀사역과 사도행전적 목회'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흥미 있게 풀어나갔다.

권 목사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낸 것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된 것이 아니라 선배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아서였다"며 "젊은 시절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잘 정도였고, 성경 전체가 닳을 정도로 보고 또 봤다.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목회는 한마디로 '말씀목회'라고 단언하면서, "중고등부 교역자 시절, 수련회를 가면 다른 것 하지 않고 놀면서 말씀만 가르쳤다. 깃발이나 핸드북,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쉬고 놀면서 말씀을 보니 중고등부가 부흥이 됐다"고 했다.

이어 "청년사역은 목회자가 청년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다"며 "자취하는 학생들에게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는 못 드려도 12시에 와서는 꼭 점심을 먹으라고 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변화시키리라는 마음으로 조바심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배를 제시간에 드리고 변화되더라"고 말했다.

권 목사는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강해하면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사라진다"면서 "구원론이 확실한 로마서를 공부하면 '지옥가고 싶어도 못가는 신세, 천국에 가기 싫어도 가야하는 신세'"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제일 쉬운 것이 새벽기도다. 왜냐면 새벽에는 누가 간섭하지 않고 나만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새벽기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목사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청주 지구 총순장 및 협동간사, 한국 대학생 선교회 NLTC 이사 및 전국 순회강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기독학생회 지도목사, 충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CMF 지도목사, 일본 오사카 Grace Mission 선교 담당 등을 역임했다.

토마스 맹 기자

Dealer No. 62655
훼밀리자동차
FAMILY AUTO SALES
213-747-59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황제
김 기 형
213-747-5900
714-743-1000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훼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FAMILY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8th St.
Olympic Blvd.
Union Ave.
Blaine St.
Figueroa St.
110
10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이 사람] 폴히버트선교연구원 세운 백신종 선교사

미국의 신학교에 한 선교연구원이 한인 선교사에 의해 세워져 주목된다. 바로 지난해 8월에 대표적인 복음주의 계열의 시카고 트리니티복음주의 신학교에 세워진 폴히버트선교연구원 (http://hiebert.tiu.edu)이 그것이다. 당시 박사과정에 있던 백신종 선교사가 제안하고 익명의 한인교회 성도가 씨드 머니를 기증해 첫 발걸음을 뗀 연구원.

선교연구원을 시작하고 현재 디렉터로 있는 백신종 선교사(SEED선교회, 트리니티국제대학교 외래교수)는 "한인과 한인교회로부터 시작된 연구원인 만큼 한인교회와 한인선교에도 다양한 도움을 주고 싶고 또 그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중앙대학교, 총신대 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를 졸업하고 미주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2004년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사역을 해 왔다. 캄보디아 현지교회를 개척해 3년간 목회했고, 현지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다양한 사역을 개발했던 백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선교이론과 선교학 개발에도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시카고에서 워싱턴에 방문한 백 선교사를 만나, 연구원의 시작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 폴 히버트 박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폴 히버트 선교연구원은 20세기 선교문화인류학의 거장인 폴 히버트(Paul G. Hiebert) 박사의 유작과 생전 학술지에 실린 논문, 강의안 및 미발표 파일들을 모아 전세계 학자들과 현장의 선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 연구원은 히버트 박사가 남긴 130여개의 파일을 PDF로 옮겨 디지털문헌보관소에 저장해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그의 선교학적 업적을 통해 한인을 비롯 전세계인들이 찾아와 연구하고 선교적 답을 얻어가는 창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연구실에 쌓여 있던 폴 히버트 박사의 유작

디지털 문서화해 웹상에서 전세계 선교사들과 공유

폴히버트선교연구원은 어떻게 시작됐나?

캄보디아 선교사역을 하던 백 선교사는 지난 2009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 뉴헤이븐에 위치한 OMSC(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에서 선교연구를 하게 됐다.

당시 그곳에서 우연히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학장과 박사과정 책임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슬람 문화와 전도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백 선교사의 말에 두 사람은 학문적 연구를 제안하며 2년간의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다.

그는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중, 트리니티신학교 교수로 지내다 2007년 작고한 폴 히버트 박사의 번역되지 않은 유작과 수 많은 연구 자료들이 연구실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십여 명 남짓의 박사과정 학생들만 이용하게 하기보다 정보를 디지털화 해서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인터넷 상에 공개해 전세계 선교학자들과 현장의 선교사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과 미국에서 폴 히버트 박사를 두 차례 만났다는 백 선교사는 "폴 히버트 박사 생전에 문하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2007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는 마음에서 접어두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작은 인연으로 시작된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와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박사과정 첫학기를 시작하면서 북미주의 3대 선교학 저널 중 두 곳(IJFM과 Missiology)에 논문을 발표해 백 선교사는 담당 교수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한 독지가가 선교연구와 개발을 위해 후원하면서 학교 측에서도 폴 히버트 선교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폴히버트선교연구원은 한인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렇다면 폴히버트선교연구원이 한인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백신종 선교사는 주저하지 않고 "폴 히버트 박사의 '이중문화 혹은 이중정체성'을 가장 먼저 꼽았다."인도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난 히버트 박사는 성장하면서 그 스스로 정체성 획득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교학자였던 만큼, '이중문화'에 대한 이해는 선교사 자녀로써 그리고 또한 선교사로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관점으로 히버트 박사는 선교학과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학문적 이중성을 선교문화인류학의 발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중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목시켜야 할 주요 연구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 선교사는 "히버트 박사가 연구한 '이중 정체성'은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의 문화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미주한인(Korean American)의 정체성이 직면하는 문제를 규명해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천국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할 기독론적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종 선교사

폴 히버트 박사는 누구이며, 어떤 신학자인가?

폴 히버트 박사는 2대째 인도사역을 하던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대를 이어 6년 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공중보건학과 인류학을 공부한 그는 1967년 문화인류학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풀러신학교(1977-1990)에서 가르쳤고,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1990-2007)로 재직했다. 그의 문화인류학 관련 저서는 선교사들뿐 아니라 신학교 필독서로 권해질 만큼 중요한 업적을 지니는 등 선교문화인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탁월한 선교학자로 평가받는다.

백 선교사는 "폴 히버트 박사에 대한 연구는 한인 선교 뿐 아니라 세계 선교의 지대한 기여, 즉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발전을 위해 주목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 히버트 박사에 대한 연구는 한인 선교,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잠재력 지녀

백 선교사는 "170편에 이르는 히버트 박사의 연구논문과 3만 페이지에 달하는 12권의 저서, 강의안, 연구노트, 미발간 자료 등은 문화인류학, 교육학, 공중보건학, 사회학, 지역학, 민속학, 종교학, 신학과 선교학자들이 연구할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며 폴 히버트 박사의 저술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를 제안한다. 폴히버트 박사의 이중문화, 자신학화, 비판적 상황화, 배타적 중간 영역, 민속종교 이론, 초문화 신학, 중심집합이론 등은 현재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선교문화인류학적 진단과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원 일은 내가 시작했지만, 다른 분을 통해서 더 깊은 연구로 이어가길 바란다"는 백 선교사.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도록 부르신 사람이고, 트리니티의 교수님이 맡아서 연구사역을 더 깊이 발전시켜 갔으면 하것이 바람"이라며 "매년 연구원 자체에서 박사과정 학생 3명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되도록이면 한인 선교사들도 관심을 갖고 (신청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인교회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미래를 생각하며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 연구, 개발하는 일에는 관심이 적고 협력도 더딘 것 같다"며 "이같은 연구원은 당장 한인교회가 베네핏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의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백신종 선교사 연락처: danbaeq@gmail.com, 703-789-3636

권나라 기자

세계 36개국서 탈북자 북송중지 외친다

오는 6일 전세계 한인교회 목사들과 함께하는 '탈북난민북송반대 전세계 집회'를 앞두고, 3일 오후 1시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주최로 이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경석 목사(네트워크 공동대표)와 김규호 목사(총괄실행위원), 이호택 피난처 대표와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장과 송부근 NK.C에바다선교회 대표, 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와 김충립 목사(공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규호 목사는 9월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첫째주 목요일마다 전세계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 강제북송반대 동시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취지 및 경과를 보고했다. 오는 6일 정오에는 36개국 47개 도시에서 집회가 개최되며, 한국에서는 오전 11시 부산 중국영사관을 시작으로 정오 서울 중국대사관, 오후 3시 광주 중국영사관 등에서 열린다.

서경석 목사는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탈북난민 강제북송반대 집회가 보다 규모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인권운동가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전재귀 목사를 비롯한 모든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말했다.

동시집회 개최지는 총 36개국 47개 도시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6개국 8개 도시): 대만(타이페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이스라엘(텔아비브), 일본(동경), 태국(방콕), 한국(서울·광주·부산). 유럽(16개국 17개 도시): 네덜란드(헤이그), 덴마크(코펜하겐), 독일(베를린·프랑크푸르트), 루마니아(부큐레슈티), 벨기에(브뤼셀), 스웨덴(스톡홀름), 스위스(베른), 스페인(마드리드), 영국(런던), 오스트리아(빈), 이탈리아(로마), 체코(프라하), 포르투갈(리스본), 폴란드(바르사바), 프랑스(파리), 헝가리(부다페스트). 미주(9개국 17개 도시): 과테말라(과테말라시티), 도미니카(산토도밍고), 멕시코(멕시코시티·티아나), 미국(워싱턴·뉴욕·엘에이·시카고·휴스턴·샌프란시스코), 에콰도르(키토), 캐나다(오타와·토론토·밴쿠버), 브라질(상파울루), 코스타리카(산호세), 페루(리마). 아프리카(3개국 3개 도시): 가나(아크라), 남아프리카공화국(프리토리아), 케냐(나이로비). 오세아니아(2개국 2개 도시): 뉴질랜드(오클랜드), 호주(시드니).

이대웅 기자

옥한흠 목사가 제자훈련 狂人으로 산 까닭은

소천 2주기 맞아 추모예배와 학술대회 개최

故 옥한흠 목사 2주기 추모예배 및 학술대회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故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 소천 2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는 동시에 그의 사역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와 CAL-NET(전국대표 오정호 목사)는 3일 옥한흠 목사 2주기 추모예배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CAL-NET 전국대표 오정호 목사는 "목사님께서 평생 그리시던 주님의 품에 안기신 지 2주년이 되었다"며 "이 그리움이 목사님께서 평생 씨름하셨던 주제인 교회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응규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의 선교적 교회론과 제자훈련목회'를 주제로 발제했다.

옥한흠 목사가 자신이 일평생 헌신했던 제자훈련에 눈뜨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고인은 성도교회 대학부에서 사역하던 시절, "왜 기성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그 해답을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에서 찾았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옥 목사는 또 "그렇다면 왜 전통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평신도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존재들인가? 왜 제자훈련은 전통적인 교회 토양에서는 항상 배척을 받을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지상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됐고, 그 해답을 찾고자 1975년 여름 가족들을 고국에 두고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칼빈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거치며 제자훈련을 위한 학문적 순례의 길을 걷던 고인은,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큉의 저서 「교회」를 접하면서 전기를 맞게 됐다. "사도적 사명을 가진 교회가 사도적 교회이며, 이러한 사명은 특정한 직무가 아니라 전체 교회에 계승된다"는 큉의 주장에 공감한 고인은, 이를 통해 제자훈련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해답을 얻게 됐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큉의 저서가 옥한흠 목사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고인의 저서 「광인론」에도 언급돼 있다.

박응규 교수는 "옥한흠의 제자훈련 목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교회론, 특히 성령과 사도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옥한흠의 교회론에 의하면, 성경적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하며, 사도적이기 위해서는 평신도를 포함한 전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옥한흠 목사의 삶과 사역의 기저에는 철저하고 확고한 구원론적 신앙과 교리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러한 신학적 특성은 제자훈련 과정에도 반영되고 적용되었지만, 그의 강해설교를 비롯한 다양한 목회사역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옥한흠 목사는 실천적 개혁주의로서 이 시대의 철저한 교회론적 개혁자였으며, 제자훈련 목회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한국교회를 깨우며 한평생을 올곧게 살다 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진정한 목회자였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 발제에 대해 논찬한 오덕교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뛰어난 학문성이 나타나며, 은보 연구자들에게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발제자가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큉이 고인에게 끼친 영향을 과대평가한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오 교수는 옥한흠 목사에 대해 "오직 교회만을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며, 세계 교회에 내세울 수 있는 한국교회의 자랑"이라면서도 "사랑의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대교회로 만드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 전통에 따라 교회 나누기 운동을 전개했더라면, 세계 교회사에 우뚝 서는 모범적인 장로교도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고 여운을 남겼다.

두번째 논찬한 박명수 교수(서울신학대학교)는 "박응규 교수의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선교단체가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목회는 개혁신학적인 원리와 선교단체의 영향이 기존 교회 내에서 잘 조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옥한흠 목사는 1938년 경남 거제 출생으로 호는 은보(恩步)다. 성균관대학교 영문과를 거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미국 칼빈신학교(Th.M)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D.Min)를 졸업했다. 2001년 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제자훈련을 통해 한국교회에 미친 그의 영향력을 인정하여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1972년 목사안수를 받고 1978년 서울 서초동에 사랑의교회를 개척하여 제자훈련 목회로 수천 명의 평신도 리더가 함께 뛰는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 냈다.

류재광 기자

"분열된 장로교, 하나되자"

한장총, 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세상의 빛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100년!'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 이하 한장총)가 주최한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가 1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만여 성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한국장로교 연합예배, 3부 축하와 감사, 4부 폐회식 순서로 진행됐다. 그 동안 교계 집회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내빈 인사' 순서를 대폭 줄이고 성찬식과 기도회 등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들로만 식순을 구성, 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연합예배에서 '요단을 건너자'(여호수아 1:1~4)를 제목으로 설교한 김삼환 목사(명성교회)는 "한국의 장로교가 걸어온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다"며 "우리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돌려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그러자면 먼저 앞에 놓인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았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1세기 동안 나눠졌던 장로교는 이제 앞으로의 1세기를 맞아 서로 일치 단결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반드시 남북통일의 요단강도 건너야 한다. 이 분단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순 없다. 장로교가 하나된다면 하나님께선 분명히 통일을 선물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강조한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수많은 우상숭배와 음란, 물질의 문화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제 사도들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자"고 권면했다.

한장총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한국장로교는 지난 1세기 동안 큰 부흥을 맞았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더이상 분열과 세속주의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개혁의 의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총 상임회장이자 이번 기념대회 준비위원장인 권태진 목사는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100주년이 된 한국장로교는 이제 세상의 빛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함께 가자"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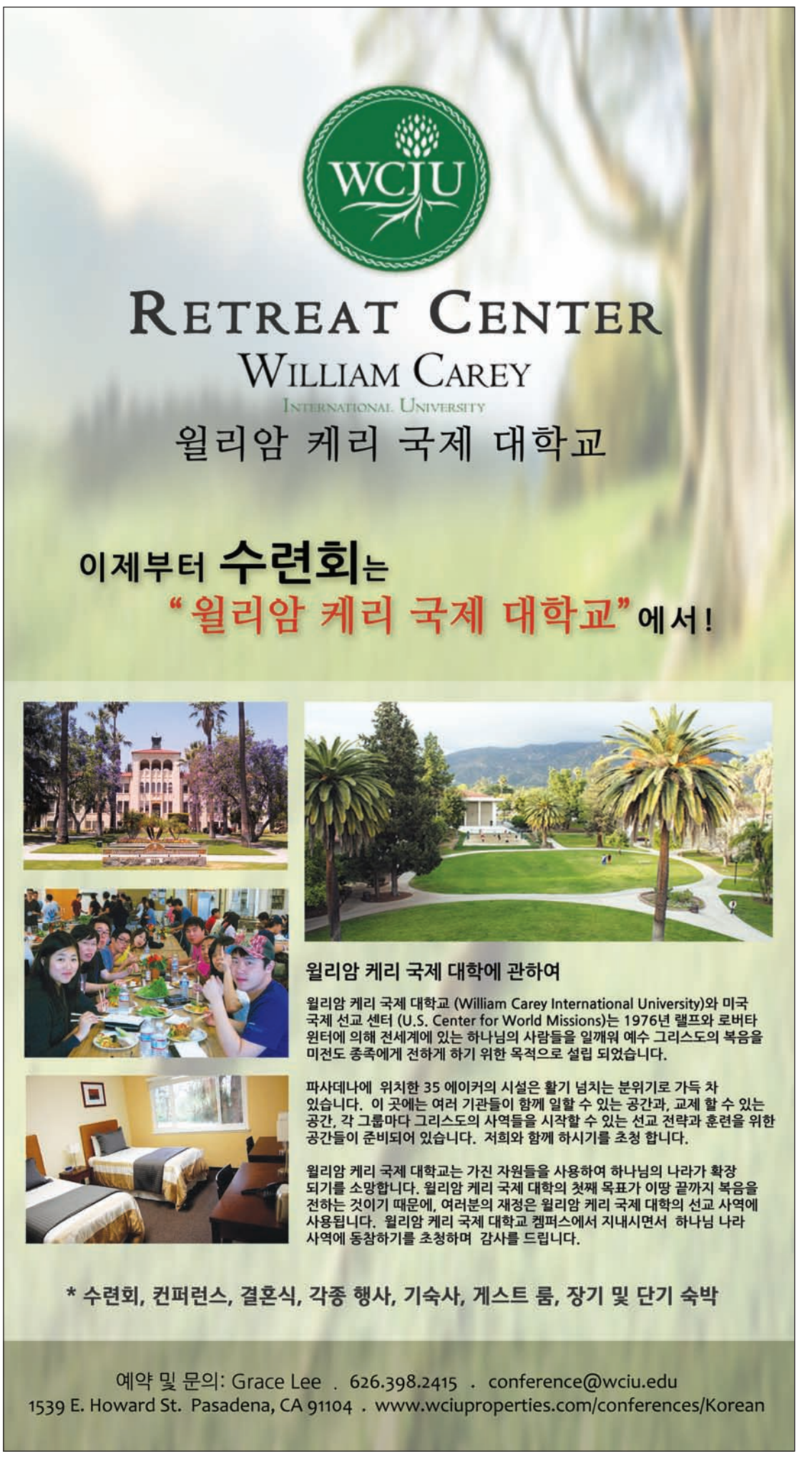
주승중 교수, 주안장로교회 차기 담임 확정

주승중 교수(장신대 예배설교학)가 나겸일 목사에 이어 주안장로교회 새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주안장로교회는 2일 공동의회를 열고 교인 투표를 거쳐 주 교수를 차기 담임으로 확정했다. 투표자 중 72.8%가 주 교수의 차기 담임목사 청빙에 찬성했다.

주 교수는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과 동 대학원(Th.M.)을 졸업하고 미국 콜럼비아 신학교(Th.M.)와 보스톤대학교대학원(Th.D.)에서 유학했다. 이후 장신대에서 예배설교학을 가르쳤다.

김진영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및선교회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2부예배 오전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가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김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LA동부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휄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청소년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HYUNDAI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NY교협, 헌법개정 · 건물 이전 통과

헌법개정 만장일치 가결...건물이전은 이전추진위 구성키로

뉴욕교협 임시총회가 27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개최됐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가 27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헌법개정안과 교협건물이전안을 통과시켰다.

헌법개정안은 지난회기 법규위원회가 연구한 내용을 기초로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뉴욕교협의 사업을 세분화하는 한편, 적용되지 않던 사문화된 사업이나 내용들은 삭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 분과조직에서 미디어분과, 조선족분과, 장애인분과 등을 신설해 보다 폭넓은 선교를 지원하게 됐으며, 특별위원회 중 교단협력위원회가 신설됐다. 또 기존의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로 대체하고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대책협의회 구성원을 뉴욕교협이 인준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 또 영어권목회자협의회의 신설도 눈에 띄는 내용이다.

특히 실행위에서 가결된 선관위 세칙 개정안에서 다뤄진 바 있는 현 회장과 동일교단의 소속인은 3년 이내에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으며 출마 횟수도 3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날 헌법개정안은 참석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교협건물이전안은 재산관리위원장 신현택 목사가 뉴욕청소년센터 쉘터 건물과 현 교협건물을 처분하고 새로운 장소를 구입하기 위한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현직 임원을 당연직으로 두는 이전추진위원회가 실무를 맡아 건물 매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최종 결정은 총회가 내리도록 했다.

뉴욕교협 제 4차 임실행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뉴욕한국인그레잇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개최된다. 또 당초 10월 15일로 예정됐던 정기총회는 10월 22일로 날짜를 변경, 오전 10시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날 회무에 앞서 열린 예배는 김종훈 목사의 인도로, 김성은 목사 기도, 김해종 목사 설교, 방지각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해종 목사는 '함께 지어져가는 역사'(엡2:19-2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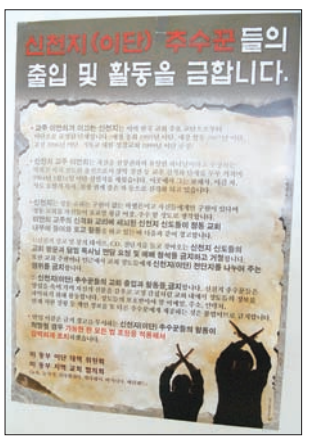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 제작돼

미동부이대위 배포... "포스터 부착해야 소송 방지"

미동부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미동부이대위)가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지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미동부이대위의 이번 포스터는 교회에 추수꾼을 심어 포교를 하고 있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한편, 신천지의 의도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작된 것이다.

뉴욕교협 부회장 김종훈 목사는 "요즘 신천지가 기성교회에 와서 일부러 넘어져 소송을 걸어 교회를 괴롭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미동부이대위가 주의를 요청했다"며 "포스터가 부착돼 있을 경우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포스터가 없을 시 소송을 당하면 교회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미동부이대위에서 이번 포스터 배포를 부탁하면서 함께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스터에는 신천지의 교회 주변 포교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신천지 추수꾼의 교회 출입과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돼 있다.



신천지 출입 금지 포스터

또한 추수꾼의 활동이 적발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 조항을 적용해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왕따 부적응… 탈북청소년을 도웁시다

9월 22일 희망 나눔 콘서트 개최

탈북자들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주한인재단-워싱턴(이은애 회장)이 주관하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테너 심용석의 한국 가곡 희망나눔 콘서트'가 개최된다.

음악회에는 심용석 테너(미주한인재단 예술위원장)가 12곡의 가곡을 선보이며, 수잔 윌러(Susan Wheeler) 소프라노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 외 1곡 한국 민요를 부른다. 이외 메트로폴리탄여성합창단(NAPAW/MWC)과 국악인협회 회장 조형주 국악인도 참여해 멋진 공연을 선보인다. 반주는 정세영 피아니스트가 맡는다.

이들은 한국에 있는 상당수의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공교육에 부적응 현상을 보이자 탈북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1990년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배고픔에 쫓겨 학생, 선생님 상당수가 학교에서 멀어졌고 공교육이 급격히 무너졌다. 탈북 이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 간 탈북과 북송, 혹은 도피 생활을 반복하며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 숨어지내면서 한창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30일(목) 오전 11시 우래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이은애 미주한인재단-워싱턴 회장과 심용석 테너, 손형식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 조병곤 미주 사랑의원자탄운동본부 공동회장이 참석해 이번 콘서트에 동포 사회의 관심을 적극 요청했다.

이은애 회장은 "태어난 땅에서 받지 못한 사랑과 탈북 과정에서 입었을 깊은 상처를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음악회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우리가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야 할 차세대 중 하나인 탈북 청소년 중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연히 탈북자들을 위한 한국 순회공연을 다녀오면서 탈북 청소년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심용석 테너는 "한국 내 탈북자 2만 명 중에서 20%가 청소년들인데, 북한 공교육이 무너진 상태에서 바로 한국 교육을 따라가려니 왕따 당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음악회가 탈북자들을 돕는 이민사회의 분위기에 불을 붙이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심용석 테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대학(Hoch Schule) 최고과정을 공부했고, 린쯔 오페라극장 전속 단원을 역임하기도 했던 실력파 테너다.

탈북자 인권 향상 및 북한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KCC(북한자유를위한한인교회연합) 간사 손형식 목사는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넘어 하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시대 우리 민족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대상이 바로 탈북자"라고 피력했다. 콘서트는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NOVA Ernst Cultural Center(8333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에서 개최된다. 문의: 703-357-7155

권나라 기자

지난해 전 세계 성경 반포량, 3천만 부 넘어서

휴대폰 · 오디오 등 '비인쇄 형태' 급속도 증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에서 발표한 '2011년 성서반포보고(the 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11)'에 따르면, 전세계 성경 반포가 처음으로 연간 3천만 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서 성경 반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전세계 146개 성서공회를 통해 반포된 성경의 부수는 3천2백1십만 부 가량이었다. 이것은 전년도 2천8백9십만 부에 비해 11.2%가 증가한 수치다.

성경 부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29.2%, 아메리카 지역에서 19.9%, 유럽 중동 지역에서 2.7% 증가한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4.2% 감소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어 반포된 성경의 주요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로, 전세계 반포 부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신약의 반포 부수는 2010년과 거의 변함이 없이 9백8십만 부였다. 성서공회들이 반포한 단편과 전도지 부수는 3억3천9백만 부로, 지난해보다 3.7%가 증가했다.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되는 오디오 성서를 포함한 '비인쇄 형태' 반포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십4만3천 부의 성경을 반포한 남아프리카성서공회는, 대부분 비인쇄 형태로 아프리카에 반포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성서공회는 2만 부, 미국성서공회는 1만8천 부의 비인쇄 형태의 성경을 반포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성서공회가 2천5백 부의 비인쇄 형태의 성경을 반포했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비인쇄 형태로 반포된 성경 부수의 40%에 해당한다. 인도성서공회는 4만1천 부의 신약을 반포했다. 유럽 중동 지역에서는 독일성서공회가 2만 부의 비인쇄 성경을 반포했고, 영국성서공회가 3십4만5천 부의 신약을 반포했다.

이대웅 기자

미국의 불경기, 목회자들에게도 심리적 부담

전체 64%가 부정적 영향 받았다 응답

미국에서 불경기 여파의 심리적 부담이 목회자들에게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회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최근 1,000여명의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미친 경기의 효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56%가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으며, 8%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총 64%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헌금 감소를 경험한 교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2010년 전체 교회 중 23%가 지난해에 비해 헌금이 줄어들었다고 한 반면, 2012년 5월까지의 헌금 측정치가 2011년 같은 기간 헌금액보다 줄어들었다고 한 교회는 전체의 15%에 그쳤기 때문이다.

라이프웨이리서치 디렉터인 스캇 맥코넬 씨는 "경제 상황을 보는 목회자들의 관점 역시 경기 지표를 보여주는 기타 조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며 "교회에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대다수 부정적으로 조사된 것은 예상했던 결과였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미국의 경제상황을 '나쁘다(Poor)'라고 답한 미국인이 전체의 43%, '좋다(Good)' 혹은 '매우 좋다(Excellent)'로 응답한 미국인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또 갤럽 응답자 중 10명 중 6명 꼴로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35%만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긍정 전망했다.

라이프웨이의 최근 조사는 5월 한 달간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대 ±3.2% 오차율을 갖고 있다.

갤럽 조사 역시 전화로 이뤄졌으며, 총 3,37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총 7일간 이뤄졌다. 갤럽 조사의 오차율은 최대 ±2%로 나타났다.

권나라 기자

새들백교회, 소그룹공부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

등록교인보다 소그룹 성경공부 참석 인원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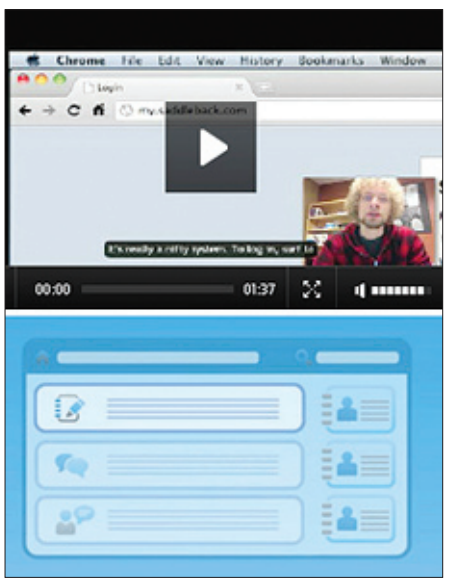
미국 새들백교회(담임 릭 워렌 목사)에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들백교회 인터넷 캠퍼스'로 불리는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페이스북 같이 서로의 소식을 포스트할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의 기도제목 혹은 토론 주제들을 올려놓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특정 시간을 정해 채팅으로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비디오로 성경공부를 시청한 후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형식이 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그룹에 들어가거나 자신이 직접 시간과 소그룹 이름을 정해 멤버들을 모집할 수도 있다.

이같은 온라인 성경공부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는 남가주 전역에 넓게 퍼져있는 성경공부 모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형편상 직접 가지 못하는 이들 혹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을 성경공부로 이끌기 위한 전도의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릭 워렌 목사는 최근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새들백교회 등록교인이 약 2만1천명이며, 매주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이들은 3만2천명"이라고 밝혀 소그룹 성경공부에의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현재 교회에는 약 6천여 소그룹이 있고, 남가주 전역의 196개 도시에 퍼져 있다"고 전했다.



한 교인이 새들백교회 온라인 소그룹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http://saddleback.com/internetcampus/smallgroups/

권나라 기자

미국교회 목사 에이즈 숨기고 성관계

보균 사실 숨긴 불고지 혐의로 체포돼 기소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미국의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뻔뻔한 가해자가 애틀랜타의 한 대형교회 목사라는 주장까지 나와 파문은 커질 조짐이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틀랜타 경찰은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인 HIV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크레이그 데이비스를 HIV 감염 불고지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조지아주는 에이즈 환자와 HIV 보균자에 대해 성관계시 상대에게 미리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데이비스의 범죄 행각은 그가 HIV 보균자임을 뒤늦게 안 여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46세의 한 피해 여성은 "15년동안 금욕생활을 했는데 데이비스와 데이트를 한 뒤 건강 검진에서 HIV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른 피해자는 데이비스가 최근 성관계를 한 뒤 HIV 감염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피해자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주님이 잠자코 있으라고 해서.."라고 둘러대면서 "HIV에 감염돼도 계속 살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피해자는 데이비스가 대형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라고 말했으나 데이비스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데이비스가 피해 여성 한 명과 같은 교회에서 일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다 교회 측도 데이비스의 신분을 확인해달라는 언론의 요청에 침묵하고 있어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2:45 /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1부예배(EM) 오전 9:45 / 2부예배(EM) 오후 1: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0:00 / 영어장년부 오전 10:00 /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30 /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박용덕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 Youth 예배 오전10:30 /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최성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8:00 / 2부예배 오전10:00 / EM/Youth예배 오후12:00 / AWANA 오후12:3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 오전6:00(토) / 금요찬양예배 오후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 2부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손인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00 / 3부예배 오전 10:30 / 4부예배 오후 12:15
5부예배 오후 2:00 / EM예배 오후 12:15 /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지 샤론 담임목사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 오후 7:30
매일 오전 6:00(화-금) /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자화, 생활화, 사명을 감당하려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받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 주일학교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찬양 오전 11:15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 청년부예배 오후 2: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 2부예배 오전 09:30 / 3부예배 오후 11:30 /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 토요일 오전 06:00 /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2:00 /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 2부예배(EM) 오후 1:15 /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박세록 대표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 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예배 오후1:30 /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제자되어주님과사람을 뜨겁게사랑하며섬기는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 2부예배(EM)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30 /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 5부예배 오후 3:00(KM청년)
장애우예배 오전10:00 / Toddler - Youth 오전11:30 /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am / 수요예배 오후 8:00 /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9:30 /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후 12:00 / 아동부예배 오전 11:50 /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성현경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 스페인예배 오전 10:00 / 한국어 오전 10시 (윌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 오후 6:00 (토) / 수요예배 오후 7:45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

HQ 山蔘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산삼도매 한인 최대유통회사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펜실베니아주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산삼 가격 파괴 가격표

산삼수령	뿌리당무게	뿌리수/LB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 120년근)	1호:23-35그램 2호:15-22그램	20-30뿌리	$1,200/
중 3호-4호 Mixed (20년- 60년근)	3호:9-14그램 4호:5-8그램	33-60뿌리	$900/LB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가격	무게	뿌리 갯수	산삼 수령	종전 무게
$200	90그램	15뿌리-20뿌리	평균 30년근	70그램
$600	250그램	20뿌리-30뿌리	평균 50년근	200그램

한국에는 매회 300그램까지 합법적인 면세품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미국산삼이 이곳보다 약 50배 가량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200 / 소매가 ~~$1,000~~
~~70그램~~ 90그램 / 평균 30년근 15~20 뿌리

$600 / 소매가 ~~$3,000~~
~~200그램~~ 250그램 / 평균 50년근 20~30 뿌리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림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매계의 약리작용을 강화한다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8. 각종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9.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15. 만성피로나 하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곱게하며 종기를 삭혀줌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및 치료에 탁월함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돋아준다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 진다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건강상담및 문의: Dr.최

(올림픽과크렌셔 북동쪽 코너 단층 상가건물)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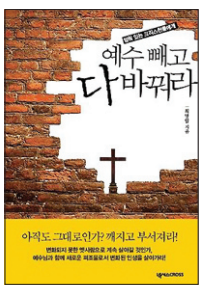
BOOK

신간추천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예수 빼고 다 바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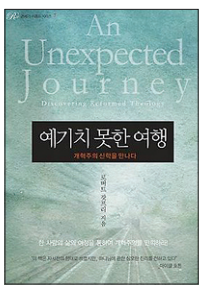
최명일 | 넥서스CROSS | 252쪽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책은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 '회개하는 다윗', '왼손잡이라는 단점을 쓰임받았던 에훗', '두려움에 울부짖었던 여호수아' 등 성경 속 인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준다.

예기치 못한 여행

로버트 갓프리 | 지평서원 | 2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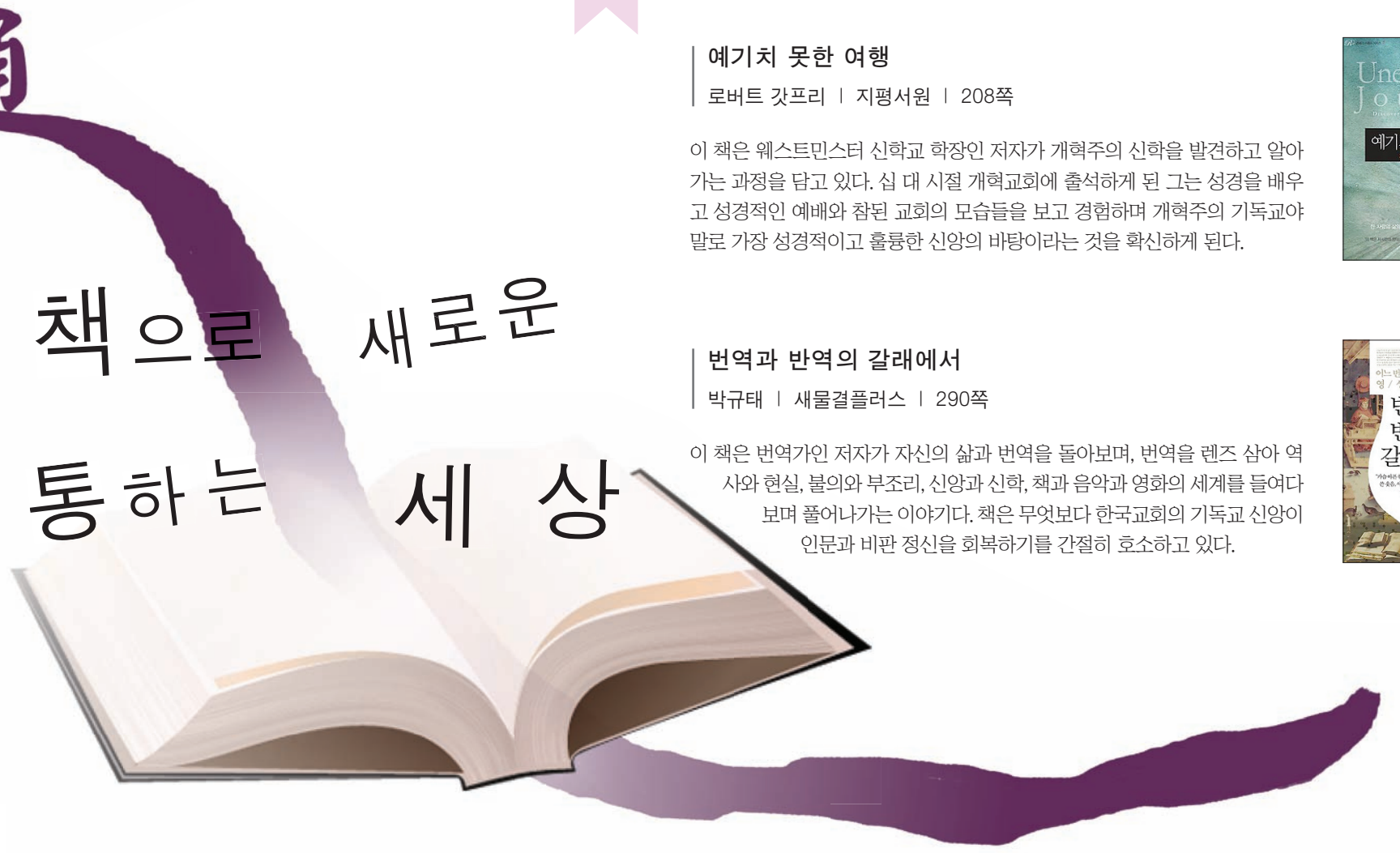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인 저자가 개혁주의 신학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십 대 시절 개혁교회에 출석하게 된 그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적인 예배와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며 개혁주의 기독교야말로 가장 성경적이고 훌륭한 신앙의 바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번역과 반역의 갈래에서

박규태 | 새물결플러스 | 290쪽

이 책은 번역가인 저자가 자신의 삶과 번역을 돌아보며, 번역을 렌즈 삼아 역사와 현실, 불의와 부조리, 신앙과 신학, 책과 음악과 영화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풀어나가는 이야기다. 책은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기독교 신앙이 인문과 비판 정신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걱정하면 믿음 없어 보일까' 걱정하는 크리스천들

습관적으로 걱정에 휩싸이는 이들이 읽으면 좋은 책

최근 미국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심·걱정과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무려 81%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사 병에 걸리더라도 회복되리라는 확신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평균수명을 살펴봐도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은 82세로 모든 직업군 중 가장 높다. 이 대학 연구진은 "독실한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일수록 확실한 자신감과 목적의식이 있다"며 "보통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 근심걱정과 불안 또는 우울증이 몰려오지만, 종교인들은 간접적인 형태의 제어 능력에 의지해 안정을 취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거나 견뎌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상에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 불안과 의심이 가시질 않는다. 당장 목회자들부터 성도들 걱정만 해도 밤잠을 설칠 때가 부지기수이다. 설교는 또 얼마나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인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이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걱정할까(아드폰테스)〉는 '습관적인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저자인 목회자 윌 하트와 정신과 의사 롭 월러는 기독교와 정신건강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영국 단체 '마인드 앤드 소울(Mind & soul)'의 공동 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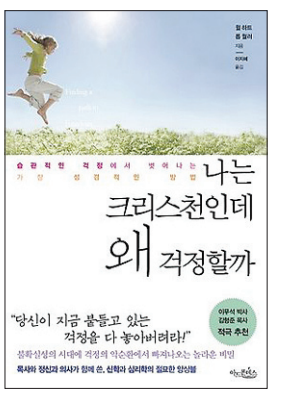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걱정의 실체와 원인을 파악하고 단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저자들은 앞부분부터 "모든 걱정을 단번에 해결해줄 비법을 찾는 사람은 이 책에서 비결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걱정은 인간이 느끼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의 하나이고, 성격적으로 걱정이 많을 수도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등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에 '쓸데없는 역할'이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걱정에는 크게 두 유형이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문제를 위한 '해결을 위한 걱정'과 당장 급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떠도는 걱정', 걱정을 위한 걱정이다. 둘을 판별하려면, 내가 하는 걱정에 '만약에…'를 붙여보면 된다. 이 '떠도는 걱정'은 범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악순환의 시작이며, 심지어 '걱정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반드시 ~해야 한다', '항상, 절대로', '만약 ~라면' 등에서 비롯되는 '걱정 법칙들'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한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조심성이 많고 윤리적이어서 인생의 여러 법칙들을 존중하기 마련이지만, 가장 약한 걱정 법칙부터 도전해 나가거나, 논리적인 걱정 또는 걱정은 유익하다는 자신의 생각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걱정 법칙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걱정 법칙에는 대부분 '감정'이 깊이 연루돼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자문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확실성'을 추구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하나님의 용서'는 믿음과 신뢰의 영역이지, 확실성과 행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구원은 '대문이 잠겼는지 재차 확인하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뿐이다." 용서받았다는 '느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느낌'이 없어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것들보다 더 높은 성경의 권위를 믿는 통찰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확실성을 추구하다 보면 절망감만 생길 뿐이다.



윌 하트, 롭 월러 | 아드폰테스 | 220쪽

"믿음의 본질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이 받아야 할 테스트 따위는 없다. 오히려 성경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확실성을 찾아 헤매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처사다."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기보다, '치유'의 역할을 감당해달라는 뜻이다.

책은 이외에도 불확실성을 이기는 법, 걱정을 뛰어넘는 소망을 붙드는 법 등을 영적·의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PRESBYTERIAN CHURCH (USA)

제5차 목회자 컨퍼런스

성령과 목회

성령론을 전공하고 최근 2년 간 성령 사역의 현장을 발로 뛰며
연구한 학자가 말하는 목회적 성령론

때: 2012년 10월 8일-11일
곳: 찬양교회 [담임목사 허봉기 / Somerset, New Jersey]
주강사: 박영돈 교수, 특강: Leonard Sweet 교수
참가자격: 미국장로교[PC USA] 소속 목사, 사모, 전도사
주관: 미국장로교 한인목회자 컨퍼런스 운영위원회
후원: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

등록비: $190 [무숙박 $50]
등록마감: 2012년 9월15일
보내실 곳: National Korean Pastors Conference
15 Yellowwood Way, Irvine, CA 92612
*Payable to NKPC
문의: 양인목사 Pastoryang@hotmail.com

운영위원: 장윤기목사 [시애틀연합장로교회,WA]
양인목사 [한미노회, CA]
김성택목사 [클리브랜드한인중앙장로교회, OH]
김용일목사 [탬파한인장로교회, FL]
김현준목사 [산돌교회, NJ]
이상현목사 [콜롬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 SC]
허봉기목사 [찬양교회, NJ]

길은 여기에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주소를 주고 정한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면 이 훌륭한 기계가 우리의 가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심지어는 교통이 막히는 것까지 인식해 우회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없을 때에는 지도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알고 지도를 찾아서 먼저 지도 상에서 방향을 정하고, 가는 노정을 미리 연구해 찾아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도책은 이민 온 사람의 필수품이었고, 차 안에나 집에는 반드시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인근에 있는 AAA를 찾아가 지도책을 준비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곳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알기 위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피스 파크의 천문대에 이르려면 그곳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종종 하나 이상의 길이 있기도 합니다. 방향에 따라 다른 길을 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천국"이나 "하나님 아버지"로 정해지면 사정은 좀 다릅니다. 그 길은 아무데서나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곳에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이르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혼돈스럽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통해 그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요 14:6a).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6b).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길을 삼으면 아버지께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히브리서 기자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히 10:20).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하늘에 가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요, 아버지에게 이르는 길이요, 낙원에, 천국에 가는 길이요,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요, 축복의 길과 영생의 길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이 길은 복된 길이요, 즐거운 길입니다. 형통한 길이요, 쉬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거기에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여행과 목회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모르는 길을 처음 갈 때, 꼭 신나고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만은 아니다.

때론 두려움이 들 수 있다. 학창시절,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으로 신경성 위장병도 있었던 내가 어느 정도 성격적 결함을 극복했다 싶었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예민해지고 피곤해지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이드북만 들고 가족을 데리고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하듯이 다니면서 어려움과 기대치 않은 해프닝들을 겪었다. 때론 지갑을 날치기 당하는 일을 비롯해 지금 생각해도 살떨리는 도둑추격전을 겪고, 길을 헤매다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길에 들어가 전철 길로 초조하게 달리는가 하면, 예약해 놓은 호텔을 찾지 못해 헤매고, 때론 기대하고 찾아간 음식점에서 실망만 하기도 했다.

무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걸어 지친 몸으로 찾은 호텔은 에어컨도 없는 주유소 옆 호텔이었다. 인터넷에 실린 사진은 근사했는데 '아이고 나 못살아!' 가족을 가이드 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다음 날 또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운전대를 잡으면 콧노래 보단 절로 "주여!" 기도가 나온다.

목회도 꼭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가 길을 먼저 가 본 사람의 가이드북을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 가이드북에 나온 입장료가 현장에 가면 한번도 맞은 적이 없듯이, 가이드북과 전혀 다른 우회로로 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 목회의 현실인 듯 하다.

그런 면에서 목회도 여행처럼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질까봐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사진을 정리할 때 우리 가족들의 입가에는 모두 미소가 한가득이다. 고생한 일들은 잊고, 재미있는 일만 기억하며 웃듯이, 나의 목회 회고도 그러리라 믿고, 안식 기간을 마친 나는 또 목회의 운전대를 잡는다.

한 여름 밤의 단잠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한 여름 무더위가 한창이다. 본래 더위보다는 추위에 약한 나는 은근히 여름을 기다리는 편이다. 추위에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인 나는 공원을 집 앞에 두고도 마음 놓고 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거의 일년 내내 여름을 기다리는데 대체로는 여름이 너무 더디 온다는 느낌이 많다. 금년에도 일단 시작은 그리 빠르지 않았다. 5-6월에도 아침 저녁으로 추워 새벽에는 목도리를 두르고 다녔던 기억이 엊그제 같다.

그런데 7월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드디어 겹겹으로 입은 옷을 훌훌 벗어 버리고 신록이 우거진 공원을 걸으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나는 일이었다. 특히나 한국을 비롯해 온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무더위, 집중호우, 지진 등 각종 천재지변이 많은데도 그래도 남가주 지역만은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고맙다 못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이 여름 의외의 복병이 하나 나타났다. 그것은 금년도 더위가 상당히 지속적인 데다 끈적끈적한 습기를 동반하고 왔다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여름의 특징은 그야말로 작열하는 듯한 열사의 태양에도 불구하고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하다는 것이었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바닷가에 인접한 까닭에 여름이 되어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사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금년은 오렌지 카운티의 여러 가정에서 조차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끈적거리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내 경우 보통 밤에 잠이 들면 중간에 깨는 일이 없이 아침까지 숙면하는 편인데 금년 여름에는 후덥지근한 날씨에 잠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고 그나마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한번씩 깨는 때가 많다. 또 그렇게 깨고 나면 다시 잠을 이루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며칠 전에는 그렇게 잠을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두 시쯤 되었다. 아무리 뒤척거려도 잠이 오지 않아 차라리 벌떡 일어나 주일 설교 준비를 시작했다.

그렇게 잠이 깰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은 우리 집 막내가 잘 자는가 하는 것이었다. 아이도 덥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더위 속에서도 아이는 단 한번도 깨는 일이 없이 쿨쿨 단잠을 자고 있었다. 때로는 약간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대 위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러다니기도 했지만 아이는 단 한번도 잠을 깨는 일이 없었다. 그 무더위 속에서도 단잠을 자는 아이의 천진스런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따금 '왜 나는 아이처럼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곤 했다.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아이의 단순함을 나이 든 내가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리라.

아이는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잠자는 순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꿈나라로 가는데, 나는 하루 일과의 찌꺼기들을 다 털어버리지 못하고 잠자리에 든 것이었다. 그 결과, 아이는 무더위에도 상관 없이 단잠을 자는데 나는 다 털어버리지 못한 하루 일과에 발목을 잡히고 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교훈이 새삼 마음에 다가온다.

요즘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렇다면 이 여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하루 하루 열심히 생활한 후, 잠자리에 들 때는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아이처럼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면 이 한 여름 무더위쯤 거뜬히 이기고 단잠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시 127:2)"

〈특별기고〉 오늘날의 무교적 범성욕주의 재림주 사상

김 영 한 목사
한국 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스스로 하나님이라던 안상홍(1985), 박태선(1990)이 별세하더니 이제 자칭 재림주 문선명이 별세했다. 이들 교주(教主)들은 다 티끌로 돌아갈 인간이지 재림주(再臨主)일 수 없다. 통일교는 '문선명이 재림주가 되는 지상천국의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교회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惡)영향을 끼쳤다. 문선명은 그의 선생 김백문의 무교적 피가름 교리의 묘판에 기독교 재림주 교리를 접붙여 무교적 범성욕주의 재림주 사상을 만들어 내었다.

1. 김백문의 무교적 피가름 교리

통일교 『원리강론』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새로운 진리요, 성약(成約)말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문선명은 1946년 10월에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파주 소재)에서 『성신신학』과 『기독교 근본원리』 교육을 6개월 받았다(탁명환, 『통일교의 실상과 그 허상』(상),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79, 53-58). 문선명은 이 당시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를 복사해 사실상 창교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원리강론은 혼음파(피가름)의 원조인 황국주의 무교사상을 이어받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진리』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김백문이 말하는 성신신학이란 사람과 신령과의 실재적 상관을 체험적으로 가진 신학이다(김백문, 『성신신학』(평문사, 1954), 1f. 8f.). 김백문은 한국산(産) 2대 이단 교주 박태선과 문선명의 스승이다(신사훈, 『이단과 현대의 비판과 우리의 생로』, 기독교문화사, 1957, 72). 통일교 원리강론 교리는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 재림론까지 김백문의 교리와 동일하며 『원리강론』은 무교(巫教)와 기독교의 혼합사상으로 구성(이동주, 『현대 선교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127)되어 있으며 문선명을 재림주로 믿도록 하는 사이비 교리서다.

김백문은 1970년에 출판된 『신앙인격론』에서 삼위일체론을 한 신의 세 가지 역할(천부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 완성 역할)로 해석하여 단신론과 범신론으로 왜곡시킨다(김백문, 『신앙인격론』, 대지출판사, 1970, 81).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은 "신의 자녀를 위한 새로운 신적 혈통의 시원"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신적 혈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가 말하는 무교적인 강신체험과 출산신앙과 범성욕주의가 결합돼 있다. 김백문은 성신은 인간에게 강신(降神)하는 귀신이고, 신령은 신과 령, 즉 신령한 사람을 뜻한다고 본다.

신 내림은 '입류'라고 한다. '신과 사람이 일체' 되는 것이 영생 자격을 복귀하는 것인데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의 생명과는 관계 없이 예수의 속죄로만 영생을 얻는다'고 비판한다(김백문, 『신앙인격론』, 81).

그는 기독교적 중생신앙을 무교적인 출산(出産)사상으로 왜곡한다. 아담의 타락을 혈통 절단으로 왜곡한다. '혈통절단'이란 하와와 뱀과의 간통에서 발원되며, 이어진 아담과 하와 간의 성적 타락이라고 왜곡한다(김백문, 『성신신학』, 평문사, 1954, 128). 타락에서 복귀하는 조건이 정욕정화이며, 피를 새롭게 하는 것을 '혈통이환'(피가름)이라고 한다. 김백문은 혼인과 출산의 무교적 의식(儀式) 위에 혈통이환(피가름)이라는 신비적 육체적인 체례(결합예식)을 통해서 신적 혈통을 받은 자손을 번식하여 누구나 이 종자(種子)를 받으면 구원얻는 만인구원을 주장하고 있다(김백문, 『성신신학』, 243, 255).

2. 통일교의 무교적 신관, 성령관

통일교 『원리강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으로 된 이성성상, 남성과 여성의 양성체(『원리강론』, 성화사, 1966, 27f.)에서 '한(恨)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단에게 빼앗긴 슬픔을 품고 있으며, '인간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문선명이 '하나님의 위로자'라는 것이다. 통일교도들은 1968년 1월 1일 문선명이 마침내 억만사단과 싸워 이겼다고 하여 '하나님의 날'로 축하하고 있다(탁명환, 『통일교의 실상과 그 허상』(상), 92). 예수와 성신은 아담과 하와 대신 인류를 중생해 주실 참 부모로 오신 분이다. 삼위일체란 완전한 남자인 예수와 완전한 여자인 성신과 하나님을 말한다(탁명환, 『통일교의 실상과 그 허상』(상), 92). 이러한 통일교의 신관은 정통 기독교의 신관(성부-성자-성신의 상호내재)이 아니라 무교적으로 해석된 혼합주의 신관(완전한 남자(예수)-완전한 여자(성신)-하나님)이다. 통일교는 성령을 죽은 영혼들로서 산 인간들에 강신하여 공생하는 귀신들로 왜곡한다. 신자와 죽은 자의 공생 교리란 무당들의 강신현상에 얻은 교리이지 성경적 교리가 아니다. 따라서 단수인 삼위일체의 제3위격인 성령은 통일교에서는 무교적 귀신관에 의하여 복수와 다수로 왜곡된다.

문선명에게는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귀신이고, 그가 대화했던 예수도 몸 없는 귀신이었다(『원리해설』, 77f.).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통해 우는 비상한 슬픔의 체험,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근심에 대한 감정적 체험(『원리강론』, 135) 등 귀신과의 공생 현상은 무당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강신체험이다. 이처럼 『원리강론』은 김백문의 성신신학과 기독교근본진리를 그대로 복사하여 단지 재림주를 교주 문선명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3. 문선명 재림주 사상

통일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류 신화(神化)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나 유대인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고 한다. 예수는 영적 구원만 이루었고 육적 구원을 이루지 못했는 데 이 '육적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온 자가 바로 문선명'이라는 것이다. 통일교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까닭에 영육양면의 구원 섭리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문선명은 '기독교는 구원이 없다'고 설교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죽어보라는 겁니다. 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천주 청평수련홈페이지 '참부모님 말씀' 1995년 11월 3일). 문선명은 15살이던 1935년 4월 17일 부활절 새벽 정주의 묘두산에서 기도하던 중 예수의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는 예수의 미완성사업인 지상천국 건설을 책임지라는 권면이라고 본다. 그래서 통일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인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로 간주한다. 예수의 실패를 만회하려 하나님이 다시 보낸 메시아, 곧 재림주가 바로 문선명이라는 것이다.

4.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

통일교 『원리강론』 교리에는 정통기독교 교리와는 전혀 다른 혈통복귀 교리와, 피가름(혈대교환) 교리가 있다. 이러한 교리는 성적(性的)으로 해석한 타락(원죄) 교리에 근거한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천사장 루시퍼와 하와의 성(性)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이다(영적 타락). 불륜한 하와가 아담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인간의 피엔 원죄가 흐르게 됐다(육적 타락). 이것이 타락론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육적 구원까지 이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천상(天上)천국과 지상(地上)천국을 실현할 참된 메시아가 다시 와야 한다. 그가 바로 문선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육적 구원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육적 구원을 받으려면 육적 타락에서 비롯된 원죄를 없애야만 한다. 원죄를 없애려면 타락하기 전 아담의 혈통으로 복귀해야 한다. 여기서 피가름(혼음) 교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피가름 교리는 참된 메시인 교주와의 성적 관계 의식(儀式)을 통해서 더러워진 피가 깨끗해진다는 교리다. 탕감복귀 교리는 피가름을 통해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속죄)을 말한다(박정화 외 2인, 『적그리스도,통일교 문선명-야록 통일교회사』, 큰샘출판사, 1996). 하와가 천사장 루시퍼와 간음을 하여 인간에게 더러워진 사단의 피가 들어왔으므로 참 예수와의 피가름을 통해서 탕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선명은 최초의 조상이 성적 피가름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처녀들과 유부녀들은 3일 행사인 혈통복귀 피가름 의식을 치러야 완전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문선명은 피가름(혈대교환), 탕감복귀(혈통 복귀) 의식으로 3일간 간음, 간통 의식(儀式)을 치러 수많은 처녀들과 유부녀들과 간통하여 사생아를 낳고 가정을 파괴했다.

5. 문선명의 피가름 사건

문선명은 초창기인 1953년 12월 24일 밤부터 부산영도 신성묵과 유신희 부부 집에서 21일 동안 부흥집회를 하였다. 부흥집회를 하는 첫날밤에 Y대 여대생 김영희와 혈통복귀 피가름 혈대 교환의식을 통하여 장래가 촉망받던 여대생의 인생을 파멸시켰다. 그 외에도 수많은 혈통 복귀(성관계) 의식을 치렀으며,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켰다(통일교 문선명 - 6마리아 60마리아(문선명의 섹스 기쁨조) 섹스 릴레이, http://cafe.naver.com/jubo/2085; 박정화 외, 『야록 통일교회사』).

문선명은 첫번째 부인인 최선길과 그의 아들 문성진을 버리고 이혼하였다. 문선명은 수많은 여인과 간통을 했다. 문선명(40세)은 1960년 4월 11일 현재 부인인 한학자(17세)와 "어린양 결혼잔치"(탁명환, 『통일교의 실상과 그 허상』(상), 12, 50-58, 63, 69, 94)를 하고도 1965년도에 최순주 처녀와 간음혈통 복귀의식을 하여 '박사무엘'(박준경)이라는 사생아를 낳아 길렀다. 미국에서도 간음 혈통 복귀의식으로 '새미'라는 사생아를 낳아 문선명이 기르고 있다. 이렇게 문선명의 혈통 복귀 의식으로 낳은 자녀만도 18명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피가름, 탕감복귀 교리는 문선명의 영적 스승인 김백문과 황국주에게서 전래된 범성욕주의에 기초하고 있다(이동주, 『현대 선교신학』, 130).

6. 통일교의 참 부모 사상, 청평 천성 왕림궁전

문선명은 '공자, 석가, 예수까지도 나의 부하'(1976.3.15.), '본인은 재림주요 구세주'(1992.7.6.), '본인과 본인의 아내는 인류의 참 부모,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2002.8.24.)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오고 있다.

통일교 교인들은 문선명 사진을 걸어놓고 아침저녁으로 경배하며 예배때마다 문선명에게 경배한다.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의 운명을 맞았다. 문선명이 재림주가 되는 지상천국을 건설해 나아가는 과정이 곧 성지(Holy Ground)의 조성이다. 문선명의 황제 취임식은 이미 1985년 12월 25일에 완료하였다. 문선명은 2001년 1월 13일에는 한국 청평 천성 왕림궁전에서 전세계 합동결혼식을 한 통일교 교인들 3천명을 모아놓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올렸다. 그러나 이 의식은 문선명 황제즉위식이었다. 통일교는 몸 없는 귀신과 영교하고 신접하는 강신체험에다 기독교 구원 교리를 피가름과 혈통복귀 교리로 탈바꿈시켜 접붙인 무속적 종교로서, 인간 문선명을 재림주로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이비이단 종교다.

정명석(JMS)은 통일교 교리를 이용하여 30개론(약식 교리)을 만들었다. 숫처녀들이 이단의 교주에게 성상납을 통해 피가름을 하였을 때 의식(儀式) 담당 실무자가 정명석이다. 정명석은 통일교에서 나와서 사이비교단(낙성대에 애천교회)을 만들어 문선명과 같은 재림주 노릇을 하며 수많은 영혼을 빼앗고 피가름 의식을 치르다 경찰에 잡혀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 30개론이란 정명석이 받은 자칭(自稱) 계시로서 통일교의 원리강론과 비슷한 내용이다. 정명석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남녀 생식기로 설명한다.

맺음말

오늘날 한국사회에 통일교의 문선명을 비롯하여 애천교회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의 여교주 장길자, 엘리야 복음선교원(한농복구원)의 박명호 등 새로이 일어난 사이비 재림주들에 대하여 성도들은 바른 영분별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굳게 서서 종교개혁자들이 전해준 바른 교리(orthodoxie)와 바른 실천(orthopraxis)을 생활화 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교리는 있는데 바른 실천이 결여되어, 한국교회 전체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사이비 이단의 재림주들은 틈을 타서 교회에 실망한 영혼들을 낚아채 가는 것이다. 신앙의 뿌리가 약한 교인들과 일반 사회인들이 현혹되고 있다. 사이비 재림주들이 현혹하지 못하도록 한국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 3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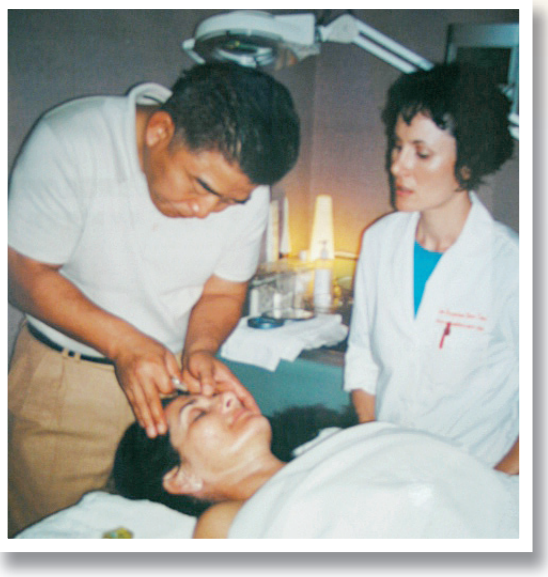
HEALTH & LIFE

피부과학의 新혁명

자가 면역시스템으로 피부 트러블 완치

피부면역학 이재현 교수가 말하는 치료 메커니즘

- 피부 고민, 혈액순환 개선부터
- 고운 피부의 비결은 몸에 있다 '피부는 몸의 거울'
- 인체의 자가 면역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켜라



애나하임에 사는 신디 김 (34)씨. 만성적인 여드름 때문에 한숨만 늘어간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 둘씩 새로 올라오는 녀석들과 투쟁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 검붉은 여드름 흉터 자국을 없애려고 피부과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아봤지만 생각만큼 진전이 없다. 끊이지 않는 여드름 고민에서 도대체 언제쯤이면 해방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데….

비단 김 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여드름을 비롯해 건선, 아토피, 기미 등 각종 피부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걸까. 최근 피부과학의 새로운 혁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피부과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피부면역학이 그 대안이다. 피부면역학의 이론을 정립한 이재현 교수는 "치료 메커니즘의 핵심은 인체의 자가 면역시스템에 있다"고 말한다.

피부면역학이란?

피부 외면에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노화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상황을 단순히 건강이 상실된 비정상 세포군으로 간주하고 문제성 피부 부위에 면역학, 피부학, 근육학 등에 근거한 다양한 방법의 한계 충격 및 관리를 통해 신체의 면역세포를 적극적인 회복기능으로 유도, 피부를 정상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 학문이다.

피부 자가 면역시스템의 원리와 개념

피부는 배설체… 내면 개선이 치료의 핵심

모든 만성질환은 웬만해선 잘 안 고쳐진다. 대부분 증세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잠복기를 거친다. 현대의학에선 현재 질병 치료에 대한 메커니즘이 주로 증세 약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염증이 생겼을 경우 항생치료를 하거나 연고를 발라서 개선시키는 식이다. 물론 증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우 효과를 본다. 하지만 고질병일 경우 얘기가 다르다.

여드름을 비롯해 건선이나 알러지성 염증 등의 만성적인 질환은 겉으로 드러난 증세만 다뤄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피부 질환은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피부 질환의 원인은 안에 있다는 얘기다. 피부 표면에 드러난 증세를 없애는 건 일종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부 표면보다는 내면을 개선시켜서 치료해야 한다는 게 피부면역학의 기본 발상이다.

자가 면역시스템 방해하는 환경 제거해야

혈류 장애 개선으로 건강한 피부미인

인체의 자가 면역시스템이란 체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온갖 병원 치료를 다 동원해도 피부 트러블이 완치되지 않는 이유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문제적 환경(비정상 세포)을 개선시켜주는 면역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데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거나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혈액 내 면역세포(백혈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피부 내면에 쌓여 혈류를 방해하는 혈전(어혈)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함으로 정상적인 (혈류 흐름의) 환경으로 복원시키는 것, 이것이 피부면역학의 핵심이다. 결국 자가 면역시스템을 이용해 치료하는 것이기에 완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피부 내면에 쌓여있는 혈전은 어떻게 제거하는 걸까? 여기엔 크게 3가지 스텝이 있다. 첫째는 피부 각질 교환주기를 정상으로 만들고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필링 시스템이다. 둘째는 피부층에 있는 산화 혈군을 제거하는 비케어기술이다.

이재현 교수가 개발한 비케어기술은 우리 신체의 노화 원인을 자외선에 의한 손상 뿐 아니라 건강의 상실, 피부 근육의 열악한 운동 등에 있다고 보고 비케어툴을 이용해 신체에 강한 파동에너지와 활발한 운동력을 주어 생체 자연치유력을 향상시켜 원래의 건강한 세포기능을 찾아주는 원리다. 세 번째는 피부를 받치고 있는 피하지방 및 근육층에 있는 방해 환경을 제거하는 치료다. 이 3가지 단계를 거치면 일단 흉터가 말끔히 사라진다. 만성여드름 등으로 인해 피부가 울퉁불퉁하거나 거무칙칙한 경우, 피부 재생과 혈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면역시스템을 복원시켜 건강한 피부 미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나정 印한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食物) 二九創一

파르펠레 샐러드 건강도 챙겨주는 고마운 샐러드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 건강과 맛, 동시에 잡는 쌈박한 이색 메뉴 어디 없을까 고민하는 그대. 몸에 좋다는 올리브유와 올리브를 이용한 지중해식 요리의 대명사, 파르펠레 샐러드는 어떤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요리 연구가 미쉘 조 씨가 소개하는 간단 레시피로 오늘 저녁 메뉴는 대략 해결된 걸로.

맛있는 재료

파르펠레 Farfelle …… 1/4파운드
케이퍼 Caper …… 1큰술
모짜렐라 치즈 Cherry Mozzarella Cheese …… 1컵
블랙 올리브 오일 Black Olive Oil …… 12개
방울 토마토 Grape Tomato …… 10개
드레싱 Dressing
올리브 오일 Olive Oil …… 2큰술
프레쉬 바질 Fresh Basil …… 5장
마늘 Garlic …… 1작은술
소금과 후추 Salt & Pepper …… 필요량

파르펠레 샐러드 만들기

1_파스타의 한종류인 보타이 모양의 파르펠레를 준비한다. 이탈리안 마켓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가 있다. 취향에 따라 예쁜 파스타를 준비하면 된다.
2_냄비에 물 6컵을 넣고 끓으면 소금 1Tbs과 파르펠레를 넣고 10분정도 삶는다.
3_어느 정도 파르펠레가 삶아 졌다 싶으면 찬물에 담구었다 건져서 물기를 제거한다.
4_물기를 제거한 파르펠레에 올리브 오일,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다음 간이 배이도록 냉장고에 10분 정도 넣어 둔다.
5_분량의 프레쉬 바질과 마늘은 잘 다져 놓는다.
6_준비된 올리브 오일에 다져 놓은 바질과 마늘을 넣고 드레싱을 만들어 놓는다.
7_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파르펠레를 꺼내 드레싱과 잘 섞은 후 나머지 재료인 모짜렐라 치즈, 케이퍼, 블랙 올리브, 방울 토마토를 넣는다.
8_완성된 파스타 샐러드를 예쁜 샐러드 볼에 담아 낸다.

짜잔~! 이렇게 간단하게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지중해 요리엔 올리브유와 올리브가 빠질 수 없죠. 최근 미국에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지중해식 식단이 '웰빙 푸드'(Well-being Food)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오히려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의 확산이 그 이유입니다. 개중 가장 심한 국가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경우 인구의 75%가 과체중이고 25%가 비만입니다.

이탈리아도 인구의 52%가 과체중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웰빙푸드를 놔두고 미국의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더 재미가 있는 건 주부들이 뚱뚱해지니까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요리를 전혀 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로 온 가족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시사하는 점이 많은 이야기죠.

두부 단호박 탕수 새콤달콤 쫄깃한 다이어트 음식

다이어터들을 위한 메뉴

맨날 풀만 먹고 살 순 없다. 다이어트에도 룰이 있다. 살 안 찌는 야채도 좋지만, 끼니 때마다 양질의 단백질도 섭취해야 한다는 건 다이어터들에겐 상식이다. 사실 단백질 섭취엔 포만감 좋은 두부만한 게 없는데, 이 두부도 하루 이틀이지 질리기 쉽다. 그래서 준비해 봤다. 두부를 이용한 이색 스페셜 메뉴. 이름하여 '두부 단호박 탕수'다.

맛있는 재료

표고 버섯 12개, 두부 1모, 단호박 1개, 치킨 브로스 1컵, 설탕 1큰술, 전분 ½컵, 식초 1큰술, 소금 1/2작은술, 벨페퍼 1컵

재료 준비하기

1_표고 버섯은 물에 불린 후 물기를 없애고 소금으로 밑간을 해 놓는다.
2_분량의 단호박은 깨끗이 씻은 후 반으로 자른 후 씨를 제거하고 다듬어 놓는다.
3_단호박 반개는 껍질을 벗겨낸 후 프로세서에 곱게 갈고 나머지 반은 깍뚝썰기를 한다.
4_벨페퍼는 깨끗이 씻어 씨를 제거하고 깍뚝썰기한 단호박 정도의 크기로 썰어 놓는다.
5_준비해 놓은 표고 버섯은 감자전분을 묻혀 튀겨 준비해 놓는다.
6_분량의 두부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전분을 묻혀 튀긴다.

두부 단호박 탕수 만들기

1_갈아 놓은 단호박을 준비한 냄비에 넣고 눌지 않도록 잘 저으면서 한소끔 끓인다.
2_단호박이 끓기 시작하면 깍뚝썰기 해놓았던 단호박을 넣고 준비한 설탕, 식초, 소금을 넣은 후 단호박이 익을 정도까지 끓인다.
3_어느정도 끓었다 싶으면 썰어 놓았던 벨페퍼를 넣고 불을 끈다.
4_예쁜 그릇에 튀겨 놓았던 두부와 표고버섯을 얹고 그 위로 단호박 소스를 얹어 완성한다.

한국에서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찰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식당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추세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 당연 가격도 비싸다. 인터넷을 보니 보통 30,000원이 넘어간다. 얼핏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은 아닌 듯.

비싼 물가에 허덕이는 일반인들이 거금을 주고 사찰음식을 먹기엔 아무래도 낯설기 마련이다. 화학 조미료나 세속적인 향신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자칫 밍밍하고 이맛도 저맛도 아니기 쉽상. 그럼에도 몇몇 사찰 음식점은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은듯 한데….

이런 면에서 '두부 단호박 탕수'는 눈으로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실제로 목구멍에 넘겨도 부담스럽지 않은 요리다. 어떤 음식이든 정성이 듬뿍 들어간 음식이 맛있다는 건 불변의 진리다. '두부 탕수'는 쫄깃한 표고버섯과 푹신한 두부가 잘 어우어져 건강에도 좋은, 사찰음식 중 하나다.
/ 글=요리연구가 미쉘 조

◆미쉘의 약력

경희대학교 /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태리 피에몬테의 I.C.I.F Master Course /
베이징 국제 요리학교 /
Washington D.C Senate House Chef /

현) 미쉘의 쿠킹클래스 운영
문의 (562)896-3090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훼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BS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 입니다!

퇴거.파산.이혼.이민.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윌셔+킹슬리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주 L.A. 커텐

커텐 전문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WINDOW FASHION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 용품 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특데일 방법 $3,900 +Tax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콘! 자동차 핸들 커버
$30 +Tax 강력한 음이온+원적외선 발생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로데오 갤러리아 833 S.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츄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츄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유 익 종 한 의 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 익 종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골드핑거 양복점

직접재단 직접재봉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0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 알로에 베라

먹고 바르기도하는 알로에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Living water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녹과 중금속 제거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수,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co.kr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Kim Ji Young Hair gallery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팸, 웰빙팸, 야채팸 $50.00 하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팸 $80.00

반드시/꼭 예약필수!! 213.505.5756
43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둥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디 신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r.,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밥을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내장비만 & 다이어트
현대인의 고질병인 비만! 몸 속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배고픔이 없고 요요현상 또한 없이 위장이 줄어 소식생활로 건강해집니다.

금연클리닉
스페셜$200
(끊을 때까지 치료)
양방/한방 두가지 치료를 병행하여 뇌가 자연적으로 엔돌핀을 생성하게 하여 니코틴을 찾는 것을 막음으로 담배를 끊게해드립니다.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499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신소재 통해 미네랄 풍부한 이온수 제공

순수한 이온화된 물로 바꿔주는 IOREX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 사용 무동력 · 무약품 · 무A/S

물을 순수한 이온화된 물로 바꿔주는 기계가 나왔다. 바로 이오렉스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온수기는 원래 전해수기라는 것으로 단지 물을 산성수와 알카리수로 전기분해 하는 기계이다.

이오렉스는 특별한 동력장치나 필터교체가 필요 없이 물이 제품을 통과할 때 제품 안에 내장된 신소재와 반응해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전기에너지에 의해서 물속의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등의 성분 변화 없이 이온화 된 미네랄이 풍부한 상태가 돼 인체에 유익한 물로 변화시켜 준다. 따라서 '살아 숨 쉬는 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필터제품의 경우 필터처리로 인해서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등이 다 걸러질 뿐만 아니라, 필터를 갈아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필터 교환이 제때 되지 않을 경우에 세균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오렉스 제품은 급수 파이프에 연결 및 설치해 물이 통과하는 것만으로 물을 순간적으로 이온 활성화해 녹, 스케일, 슬라임 및 유해한 미생물을 제거하고, 그 발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오렉스는 신소재와 두 개의 전극(AL, Carbon)이 내장돼 있으며 이들 전극 사이를 통과하는 물은 볼타전지를 형성하는데 약 0.7~1.0V의 전위를 산출하게 된다. 볼타전지의 전해액으로 작용하는 물은 전극 사이를 통과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온화 되며, 물에 용해되어 있는 여러 물질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침적을 지연시키며 결정화를 방해해 스케일 등의 형성을 멈추게 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기존의 소극적인 화학적 방법의 수처리에서 발생되는 환경적인 측면 및 비용절감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이는 이오렉스는 물유체 흐름을 유일한 동력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의 수처리 기기이다.

이 제품은 농·공업 용수의 급수시설,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등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좋은 급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설비수명 연장, 관리의 용이성, 수질 향상에 따른 화학 약품의 절감 등의 효과로 경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세계 최첨단 수처리 시스템 IOREX
미국 FDA 세계 최초 승인, 러시아 GOST마크(품질 · 위생) 인증

15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A/S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올 3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상수도 배관은 물론 APT, 주택, 학교급수시설, 공업용수배관, 제조설비 등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원만한 급수뿐만 아니라 설비수명 연장, 관리의 용이성, 수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이 회사의 제품이 인정받게 된 것은 한국, 중국, 미국 특허등록과 미국 FDA세계최초인증, 러시아 GOST인증(품질위생), 중소기업 청 성능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선정, 한국토지공사기술인정 등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오렉스는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제품이다. 지난 2005년의 러시아 국책 과제로 300여 년 된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배관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영국 등 세계각국의 수처리기를 1차 테스트 실시 결과, 이오렉스의 제품만이 유일하게 선택됐다. 이후 18개월 동안 진행된 러시아 정부기관과 해군연구소에서의 2차 정밀 테스트 실시 결과, 성능이 확인돼 정부가 GOST인증을 했다. 한국에는 POSCO, 현대중공업, GS(여수인천)칼텍스, 대전철도, 부산보훈병원, 크아루 아파트(대동건설), 익산농업기술센터, 서천화력발전소 등 상수도 설치는 공주시 당진군 외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의: 562-405-9987 / www.iorex.co.kr

토마스 맹 기자

"나는 멕시코에 빚진 자, 선교로 은혜 갚고파"

비즈포스트그룹 존 김 대표

비즈포스트 그룹 존 김 대표

"속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보다는 방향이 얼마나 바른가를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꽤 잘 나가는, 국제투자컨소시움 회사인 '비즈포스트 그룹'(Bizpost Group) 존 김 대표의 말이다.

비즈포스트 그룹은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치곤 규모면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멕시코에 10억톤 이상의 매장량을 가진 철광석 광산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멕시코에서 광물개발 및 정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중국 기업과 25억 달러 상당의 철광석 1천만톤 수출 계약을 전격 체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2009년 멕시코 연방정부로부터 6,500 헥타르 크기의 할리스코 주 피후아모(Pihuamo) 광산에 대해 향후 50년에 걸친 개발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오는 10월에도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멕시코 연방 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멕시코 정부인사 5명을 동반해 중국을 방문하고 현지 기업들과 수출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의 수장이라면 누가 봐도 김 대표는 성공한 기업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만난 김 대표의 인상은 조금 달랐다. 그의 얼굴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다고 해야 할까. 3대째 크리스천인 탓도 있을 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하 자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원화시켜 얻은 이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 단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며 "이 회사는 하나님이 선교를 목적으로 세우신 회사"라고도 했다.

자신을 "멕시코에 빚진 자"라고 일컫는 그는 "제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멕시코인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교지에 직접 갈 수는 없어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현재 다수의 남미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선교헌금 보내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한편, 그는 교계 '뜨거운 감자'인 동성애 문제나 2세 교육 문제를 비롯해 미국 사회 내 드리워진 영적 혼돈의 그림자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인 교회가 영적 쇄락의 길을 가고 있는 미국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를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한 2세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는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정한나 기자

아마존에서 성분 추출해 만든 약으로 암 치료 가능 당뇨도 잡을 수 있어

한동규 박사, 난치 암환자 치료로 파나마 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메달 수여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하였습니다'의 저자 한동규 박사는 현재 스페인 내 스페인암연구센터에서 일하며, 스페인자연요법암에이즈마약협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또 파나마 공화국 LACAS 대통령 주치의로 있으면서 난치 암환자들을 치료해 대통령으로부터 SIMON BOLIBAR 동상이 새겨진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SIMON BOLIBAR은 남미 평화를 위해 힘써온 정치 지도자로 알려졌다. 한 박사의 암 치료법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임마누엘복음선교회 구기조 목사는 3년 전에 전립선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한 박사를 통해 완치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다음은 이 치료법의 미주지역 책임자를 맡고 있는 구 목사와 일문일답.

-한 박사를 알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한 박사를 알게 된 것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이다. 내가 전립선 환자로서 서양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했는데, 한 박사의 치료로 암세포가 몸 밖으로 빠져 나와 완전치유를 받았다. 그는 2년 동안 파나마 왕실에서 주치의로 활동했고, 스페인에서 독립으로 암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양 의사들도 여기 와서 치유를 통해 병이 낫고 있다. 그의 병원에는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개인적으로 전화통화하기도 힘들 정도다.

지금 미국에서 한 박사로부터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병이 호전되고 있다. 당뇨병의 경우 음식조절을 하면서 고생하는데, 이 약을 두 달 먹으면 거의 완치가 된다. 약을 통해 각종 검사에서 정상수치가 나오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조금 더 있으면 병을 나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약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환약하고 주사다. 환약은 38개의 성분으로 구성돼 암세포만 멸절시킨다. 두 세개 외에 대다수의 성분이 남미 아마존 산골에서 추출한 것이다. 보통 항암제는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치료법은 암세포만 찾아다니며 죽이며 암세포 고름을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든다.

당뇨병을 예로 들면, 원인은 췌장이나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병에 걸리게 된다. 당뇨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완치할 수 없다. 약을 달고 살면서 좀 피곤해도 운동해야 하고, 음식조절을 해야 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런데 이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으면 한 달 후에 먹고 싶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지금 미국에 이 약을 한 달 정도 먹었는데 다 치유되신 분들이 있다.

문의: 213-235-5800(임마누엘복음선교회)

(*본 글은 간증입니다. 즉, 의학적 지식이나 의사의 소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간증자의 개인적 경험과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의학적 책임을 본지가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SUPER STORE

감사합니다.

미국 전체 에쿠스 판매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1위
2012년 서부지역 써비스 소비자 만족도 1위

9월 특별 세일

$0 Down Payment | $0 First Payment | $0 Security Deposit

2013 EQUUS SIGNATURE

(STK:058106)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60,150
RESIDUAL $27,068
T.D.O $ 5,999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579 + TAX

2012 GENESIS (STK:207604)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35,260
RESIDUAL $16,573
T.D.O $ 4,999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255 + TAX

2012 SONATA GLS M/T

(STK:465125)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20,970
Residual $10,066
T.D.O $ 3,9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O.A.C)

$119 + TAX

9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9월1일~30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9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한함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Sales
매튜 김
714.797.3571

고객상담
제니 김
310.749.7599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